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XNNA

Disciples of Christ abide in His Word.

Those who abide in His Word know the truth and are free

- R.C. Sproul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알고 자유합니다.

- R.C. 스프로울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April 2023, 4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②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③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④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⑤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06

2023 JAN
금요일 · Fri

빛의 자녀의 삶

Life as children
of light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4

5

백집기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원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와 같이 교회도 성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마 28:4장(동206장) 오렐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

에베소서 5:3-14

통독본문

3 에베소서 5장

6

5음행과 온갖 더러운 짓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
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무상 승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
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
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7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
망하라

12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라

13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
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비추이시리라 하셨
느니라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친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Paul urged people to be imitators of God. As Paul was talking about the holy life of believers, he urged peopl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he urged the church to be holy and blameless.

🎵 The Abundant Love of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5:3-14	Ephesians 5

³ But sexual immorality and all impurity or covetousness must not even be named among you, as is proper among saints.

⁴ Let there be no filthiness nor foolish talk nor crud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instead let there be thanksgiving.

⁵ For you may be sure of this, that everyone who is sexually immoral or impure, or who is covetous (that is, an idolater), has no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God.

⁶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comes upon the sons of disobedience.

⁷ Therefore do not become partners with them;

⁸ for at one time you wer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⁹ (for the fruit of light is found in all that is good and right and true),

¹⁰ and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¹¹ Take no part in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instead expose them.

¹² For it is shameful even to speak of the things that they do in secret.

¹³ But when anything is exposed by the light, it becomes visible,

¹⁴ for anything that becomes visible is light. Therefore it says, "Awake, O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무엇과 같다고 말했습니까? (5절)
What did Paul call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v. 5)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
What is the fruit of the light?
(v. 9)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A복음연합장리교회, 진호영(CA)
가나안한민연합장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Do Not even Mention the Name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전, 손을 닦고 오라고 이야기 하며,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벽이나 바닥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당부합니다. 손 닦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벽을 쓸거나 바닥에 넘어져 손을 더럽힌 채로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은 간식을 먹을 수 없고, 다시 손을 닦고 와야 합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5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마 5:28)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3절)고 말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12절).

반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며 다시 우상 숭배하고, 외인이나 나그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Before giving snacks to children, we usually ask them to wash their hands and urge them, "On your way back from the restroom, come straight back here without touching the wall or the floor." We know clean hands will get dirty again and washing them would be an exercise in futility. Nonetheless some kids wipe the wall with their hands or fall on the floor and get their hands dirty again on their way back. Those children cannot be given the snacks and must wash their hands again.

Paul called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an idolater (v. 5). Jesus said that anyone who looked at a woman lustfully had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8). Paul said,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v. 3). Don't even think about them or speak about them because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them (v. 12).

On the other hand, we must get out of darkness and walk in the middle of light. As we decid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we will experience the fruit of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fulness and become imitators of God. As we are called to be the holy people of God, we must live quite different from our old life. Will you go back to the life of an alien or wayfarer, living with the unbelievers and idolaters? Or do you want to walk in the middle of light with thanksgiving and as heirs to the kingdom of God?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4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7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47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을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바>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04

[illegible]10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사무엘하 2 Samuel 1장 □
5 마태복음 Matthew 26:1-13 □	6 마가복음 Mark 14:12-72 □	7 요한복음 John 19장 □	8 마태복음 Matthew 27:57-66 □
12 사무엘하 2 Samuel 5장 □	13 사무엘하 2 Samuel 6장 □	14 사무엘하 2 Samuel 7장 □	15 사무엘하 2 Samuel 8-9장 □
19 사무엘하 2 Samuel 12장 □	20 사무엘하 2 Samuel 13장 □	21 사무엘하 2 Samuel 14장 □	22 사무엘하 2 Samuel 15-16장 □
26 사무엘하 2 Samuel 19장 □	27 사무엘하 2 Samuel 20-21장 □	28 사무엘하 2 Samuel 22장 □	29 사무엘하 2 Samuel 23-24장 □
		03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5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겸손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Why _왜 읽어야 할까

주님과 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_어떤 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 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5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겸손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 개인의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마 11:29)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바로 겸손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의 어린 양으로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겸손의 생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가장 깊은 비밀(the inmost secret of His life)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막 10:45)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27)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본보기로 삼으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은 누가 가장 높은 자인지에 대해 언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다시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결심을 굳게 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가르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으로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겸손은 얻지 못합니다. 어떠한 강렬하고 진실된 다짐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물리친다고 하더라도 더 강력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옛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새것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는 원래 사무엘상과 함께 하나의 책이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약 1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며, 특히 사무엘하는 다윗의 40년간의 통치 기간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하의 역사적 배경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조용한 때였습니다. 앗수르는 중흥기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서쪽으로는 확장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제국은 다윗보다 약 1세기 후에 살만에셀 3세 때 가장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도 중간기로서 외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애굽의 침입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에는 헷 제국이 멸망하고 몇몇 도시 국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과 화친 조약들을 맺습니다.(삼하 8:9-11; 왕상 10:28-29; 11:1) 이러한 고대 근동의 상황은 가나안 땅의 많은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람,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버니게,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통치 하에서 이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켰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영향력을 더 확장하여 북으로는 유브라데강과 남으로는 애굽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의 기본 주제인 정치체제(왕권)의 확립과 개인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를 다룹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왕권을 강화해 가고 다윗과 하나님, 다윗과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특히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역경과 위협 속에서도 전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는데도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로마서 12:19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한 말씀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즉 사무엘서는 ‘여호와와 참된 왕은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다윗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알게 해줍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탈취하여 자신의 성으로 만듭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열 부족 사이의 중립적 도시였으며 온 유대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정치적 중심지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로도 삼았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왕, 참된 성전을 세우시는 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도래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메시아 주제는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무엘하가 신약 전체에 주요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례로 사무엘하 5:6-8에 나타나는 암시가 마태복음 1:1-14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을 묘사하고 있는 사무엘하 5:6-8의 본문에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복자이자 전사인 왕으로서 아니라 관대하고 의로운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내셨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대비를 통해 예수님의 왕권 행사와 다윗의 왕권 행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축복을 주러 오셨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신 분임을 사무엘하 5:6-8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배반의 이야기 중 일부 내용이 아마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하고 아히도벨에게 배반당하는 일화(삼하 15-17장)를 암시한 것이며 이를 통해 그 의미가 풍성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무엘하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다윗의 순종과 그 결과(8-10장), 뒷부

분은 그의 불순종과 그 결과들(11-20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온 모티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엘리와 그 집안의 불순종과 사무엘의 순종이 대비를 이룹니다.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은 뒤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과 끝까지 순종하는 다윗이 비교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20장에서는 다윗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을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이를 확대해 보면 사무엘서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사무엘서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메시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보면 역시 참된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왕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메시아)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순종할 때는 많은 복을 받고 그 왕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서 백성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그가 불순종할 때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칼날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사무엘하의 구조

1. 사울의 왕국을 다시리기 위한 노력 (1:1-5:5)
 - 1)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 (1:1-16)
 - 2)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다윗의 애가 (1:17-27)
 - 3)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2:1-11)
 - 4) 두 개의 왕가 (2:12-5:5)
2. 다윗의 국가적 성공 (5:6-10:19)
 - 1) 여부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다윗 (5:6-25)
 - 2)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다윗 (6:1-23)
 - 3) 다윗 왕가가 영원히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나단 (7:1-29)
 - 4) 모압, 아람, 그리고 에돔을 무찌르는 다윗 (8:1-18)
 - 5)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는 다윗 (9:1-13)
 - 6) 아몬과 아람을 무찌르는 다윗 (10:1-19)
3. 다윗의 개인적 실패 (11:1-20:26)
 - 1) 다윗과 우리야 가족 (11:1-27a)
 - 2)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나단 (11:27b-12:31)
 - 3) 다윗과 자신의 가족 (13:1-14:33)
 - 4) 첫 번째 반란: 압살롬 (15:1-19:43)
 - 5) 두 번째 반란: 세바 (20:1-26)
4. 결론: 다윗과 이스라엘 (21:1-24:25)
 - 1) 사울의 죄로 인해 다가를 지불하는 이스라엘 (21:1-14)
 - 2) 거인을 죽이는 다윗의 전사들 (21:15-22)
 - 3)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다윗 (22:1-51)
 - 4) 다윗의 마지막 말 (23:1-7)
 - 5) 다윗의 위대한 전사들 명단 (23:8-39)
 - 6) 다윗의 죄로 인해 대가를 지불하는 이스라엘 (24:1-25)

01

2023 APR
토요일 • Sat다윗의
그릇의 크기How Great
David wa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알려짐으로써 사울 가문의 몰락으로 종결된 사무엘상과 자연스럽게 내용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초월하여 민족적, 종교적 차원에서 사울을 평가하는 탁월한 신앙적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 새452장(통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1:17-27

사무엘하 1장

17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9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었드러졌도다

20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21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22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25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었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7 오호라 두 용사가 었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Reading Insight

1 Samuel ends with the fall of Saul's household and 2 Samuel continues as the news of Saul's death reaches David. David put aside and transcended his personal feelings towards Saul and was a man of superb religious integrity judging Saul in terms of nationalism and religion.

🎵 Oh, to Be Like Thee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1:17-27

2 Samuel 1

17 And David lamented with this lamentation over Saul and Jonathan his son,

18 and he said it[a] should be taught to the people of Judah; behold,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Jashar.[b]He said:

19 “Your glory, O Israel, is slain on your high places! How the mighty have fallen!

20 Tell it not in Gath, publish it not in the streets of Ashkelon, lest the daughters of the Philistines rejoice, lest the daughters of the uncircumcised exult.

21 “You mountains of Gilboa, let there be no dew or rain upon you, nor fields of offerings![c] For there the shield of the mighty was defiled, the shield of Saul, not anointed with oil.

22 “From the blood of the slain, from the fat of the mighty, the bow of Jonathan turned not back, and the sword of Saul returned not empty.

23 “Saul and Jonathan, beloved and lovely! In life and in death they were not divided; they were swifter than eagles; they were stronger than lions.

24 “You daughters of Israel, weep over Saul, who clothed you luxuriously in scarlet, who put ornaments of gold on your apparel.

25 “How the mighty have fallen in the midst of the battle! “Jonathan lies slain on your high places.

26 I am distressed for you, my brother Jonathan; very pleasant have you been to me; your love to me was extraordinary, surpassing the love of women.

27 “How the mighty have fallen, and the weapons of war perish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타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원한을 초월하여 그 사람의 장점과 업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Have you objectively judged someone based on his or her strength and achievements transcending your personal feelings and grudges?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다윗이 진심으로 충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
How do we know that David was truly loyal to Saul who tried to kill David? (v. 2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 라온진(NV)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창훈(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I Can Even Love My Enemy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 인해 고통스러운 도피의 삶이 이어졌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경계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를 개인적 감정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과정 안에서 그의 업적을 민족적, 종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였던 친구 요나단과 같은 선상에서 그는 사울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자 독수리와 사자와 같이 강한 용사라며 그의 업적을 높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나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 하면 좋은 사람, 내가 싫어하고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모든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예수님도 저런 인간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라며 나의 감정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원수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설교입니다. 제 자신이 아직까지도 절대 용서되지 않는 원수 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업적과 장점까지도 인정하며 원수 된 자가 무조건적 비난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선조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David had to endure a painful life of a refugee and self-imposed exile in the enemy land of Philistine, all because of Saul's continued pursuit of David's life. David even had to pretend to be a mad man to survive in Philistine where he had to appease people who were hostile and considered him a dangerous foreigner. In spite of that, David did not judge Saul in terms of personal feelings, but his judgment of Saul's accomplishments was based on objective nationalism and religion, all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God's providence. David put himself on the same level as Jonathan, his dear friend, and praised Saul and his achievements as lovely, beautiful, strong as an eagle and a warrior as brave as a lion.

We pass judgment on others 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 with me." We tend to use a binary way of thinking to establish all our relationships, that is, those who are good to me and I like are good people and those who I dislike and find difficult are bad people. For those I dislike, I try to justify my feeling by asking, "Where is the ghost? Why doesn't the ghost round up those people? Even Jesus would not forgive those people." But there is no one who is good to all people, and there is no one who is an enemy to all people. All relationships are relative. As a pastor the most difficult sermon for me is "Love your enemy." Because even for me, there is still someone whom I cannot ever forgive. But David acknowledged the achievements and goodness of his enemy and did not want unconditional condemnation of him. This is the reason why David became the ancestor of Jesus who died for the sins of all peopl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2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행복회로

이철구 목사 (남부플로리다한인교회, FL)

여러분 “행복회로”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이는 불행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려고 행복한 상상을 하게 하는 뇌신경회로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회로를 돌린다는 말은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긍정의 최면을 걸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행복회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최면에서 풀려나는 순간 밀려오는 허무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암담한 현실에 직면할 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수단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겿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눅 22:42) 그러나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올린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를 맺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 그런데 바로 그다음 순간에 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눅 22:43)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살려는 예수님의 결단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 돕고 계신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힘입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부인’입니다. 신자의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것이

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겔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팔기로 거래를 마친 후에 그들이 붙여준 하수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양,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누가 예수인지 알려주려고 한 신호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으로 유다에게 물었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눅 22:48) 유다는 이 질문을 예수께서 자신을 돌아서게 하려고 주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은혜 밖에 있었기에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나요? ‘사람의 일’이 생각을 지배하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성지에 가면 광야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입니다. 물이라고는 눈을 찢고 보아도 없는 그곳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식물의 가시는 원래 넓은 잎사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가뭄과 태양 빛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가시로 변화된 것입니다. 원래 넓은 잎사귀로 그늘을 드리워 주었을 것들이 물이 마르는 환경에서 가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은혜의 강이 흐르면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섬을 주는 그늘처럼 풍성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메말라 삭막하게 되면 그의 말과 행동은 가시처럼 섬뜩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는 유다의 가증스러운 행동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진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니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원수까지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03

2023 APR
월요일 • Mon

예수님을 찬송하던 그 입으로

The Lips
that Praised Jes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임을 밝히셨지만, 명예를 지는 고난의 종으로서 인간의 죄의 멍에를 지고 고난을 겪으시다가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 새141장(통132장) 호산나 호산나

묵상본문

통독본문

마태복음 21:1-11

마태복음 21:1-22

-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향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Reading Insight

The Israelites welcomed Jesus entering Jerusalem as a Messiah that they were waiting for with “Hosanna” and branches of palm trees. But as Jesus proclaimed that He was the Messiah, He prophesied that He would eventually die in hardship carrying the burden of sins of all people as a servant does through hardship of the yoke he would bear.

🎵 Hosanna, Loud Hosanna

Meditation

Reading Plan

Matthew 21:1-11

Matthew 21:1-22

- 1 Now when they drew near to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to the Mount of Olives, then Jesus sent two disciples,
- 2 saying to them, “Go into the village in front of you, and immediately you will find a donkey tied, and a colt with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 3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you shall say,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send them at once.”
- 4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saying,
- 5 “Say to the daughter of Zion,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on a colt,[a] the foal of a beast of burden.’”
- 6 The disciples went and did as Jesus had directed them.
- 7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and put on them their cloaks, and he sat on them.
- 8 Most of the crowd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and others cut branches from the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 9 And the crowds that went before him and that followed him were shout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 10 And when he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up, saying, “Who is this?”
- 11 And the crowds said, “This is the prophet Jesus, from Nazareth of Galile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내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과
죄악의 말이 같이 나올 때가 있습
니까?

Has there been a time when
my lips praised Jesus and
prayed and at the same time
uttered the words of a sinner?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자리
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
동했을까요?

If I were at the site of Jesus’
crucifixion how would I have
acte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드림교회, 김남석(NY)
뉴욕감리교회, 강원근(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If I Were There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았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의 앞 길에 깔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을 영접하는 관례적 행위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후 그들은 호산나로 환영하던 그 입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면 나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무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깨어지자 그 예수님을 당장에 저주하고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과, 입만 열면 예수님 찾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그 무리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결국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들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원히 모셔야 하겠습니다. 내 입을 찬양과 기도의 도구로,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아, 내 삶과 언행을 통해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회개야 살아야 합니다.

Passion Week began with Palm Sunday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people of Israel welcomed Jesus entering Jerusalem with praises of “Hosanna,” waving the branches of palm trees and laid their cloaks on the road Jesus was passing. These were customary acts to welcome the king. The Israelites welcomed Jesus as their king. But just 5 days later the lips of those same people who welcomed Jesus with “Hosanna” shouted to spit on Jesus and to crucify Jesus on the cross. The same hands that welcomed Jesus as their king waving the branches of the palm tree slapped Jesus’ cheek and crucified Him on the cross.

If I were at the site where Jesus was crucified, is it possible that I might be among the crowd that shouted to crucify Jesu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Jews who cursed Jesus and tried to crucify Jesus as soon as their expectation of the Messiah was broken and me who begins to complain and blame Jesus as soon as things don’t go the way I want even though before I called on Jesus whenever I opened my mouth. Thus, if I were at the site of Jesus’ crucifixion, I would have acted the same way as the crowd. The people of Israel rejected Jesus who came to them and crucified Him on the cross. Those of us to whom Jesus came must receive Him as our LORD to eternity. Making my lips an instrument of praise and my body a spiritual dwelling place for the Holy Spirit and permeating the aroma of Jesus living through my life, words and deeds should be the life of repenting sinners like me who crucified Jesus on the cros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04

2023 APR
화요일 • Tue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Knowing God
and Believing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고난주간 3일째,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 새204장(통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목상본문

통독본문

마태복음 21:23-32

마태복음 21:23-46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Reading Insight

On the third day of Passion Week, Jesus engaged in discussions and disputes with the Jewish leaders who did not believe Jesus. Jesus prophesied the fall of Jerusalem. Judas Iscariot who was one of Jesus' disciples betrayed Jesus and planned a rebellion.

🎵 Those Who Hear and Do the Word

Meditation

Reading Plan

Matthew 21:23-32

Matthew 21:23-46

23 And when he entered the temple,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up to him as he was teaching, and said,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24 Jesus answered them, "I also will ask you one question, and if you tell me the answer, then I also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25 The baptism of John, from where did it come? From heaven or from man?" And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saying,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say to us, 'Why then did you not believe him?'"

26 But if we say, 'From man,' we are afraid of the crowd, for they all hold that John was a prophet."

27 So they answered Jesus, "We do not know." And he said to them,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28 "What do you think? A man had two sons. And he went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and work in the vineyard today.'

29 And he answered, 'I will not,' but afterward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30 And he went to the other son and said the same. And he answered, 'I go, sir,' but did not go.

31 Which of the two did the will of his father?" They said, "The first." Jesus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go into the kingdom of God before you.

32 For John came to you in the way of righteousness, and you did not believe him, but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believed him. And even when you saw it, you did not afterward change your minds and believe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How does knowing God differ from believing God?

유대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were the people of Israel destined to fall?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God and Believing God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장의 성경을 읽기는 어려워 하면서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한 시간은 당연시하며 아까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삶에의 동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역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 참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식 그대로 나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의적 해석과 적용, 자기 죄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으로부터 믿음으로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Jesus taught the Word of God until He died. What we must keep as the highest priority of our life is to know God's mind. We can obey the will of God only if we understand the Word of God. Passion Week that began with Palm Sunday continues. We live in our contemporary period, where we as Christians find it difficult to read one chapter of the Bible but do not feel that an hour spent with smartphones is a waste of time but a worthy cause. The faith of a Christian is to join the life of Christ. Joining the hardship of Jesus and participating directly in the site of His ministry is faith.

Salvation does not come to those who just know God but to those who believe God. To believe Jesus means to live by acting as Jesus did; that is, as Jesus said, thought, acted and lived His life. The people of Israel and their leaders did not fall and were not judged because they did not know God. They knew God and His Word, but they did not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hey did not follow the Word of God as it is written but misinterpreted and misapplied it to their advantage and used it as an instrument to justify their own lives. The Word of God must not be the means to justify selfish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r to justify one's sins but must be a standard of life to obey as it is written. To understand the mind of God, we must know His Word.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we must live into the Word of God as we understand and know it. That is growing into faith from knowledge. Do not remain as one who just knows God but be the one who believes God.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그레잇넥교회, 양민석(NY)
뉴욕남산교회, 이요섭(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5

2023 APR
수요일 • Wed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라

Worship the Road
in Front of Jes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고난주간 넷째 날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억울해 하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던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영광된 죽음을 예비하였습니다.

🎵 새215장(통354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묵상본문

통독본문

마태복음 26:6-13

마태복음 26:6-13

- 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There is no written record of Jesus' activity on the fourth day of Passion Week. But behind the scenes there was a plot to crucify Jesus. Jesus knew of all these plots but did not feel mistreated and quietly prepared for His death on the cross. A woman came to Jesus and poured a bottle of perfume on Jesus in preparation for His glorious death.

🎵 All for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Matthew 26:6-13	Matthew 26:6-13

6 Now when Jesus was at Bethany in the house of Simon the leper,

7 a woman came up to him with an alabaster flask of very expensive ointment, and she poured it on his head as he reclined at table.

8 And when the disciples saw it, they were indignant, saying, “Why this waste?”

9 For this could have been sold for a large sum and given to the poor.”

10 But Jesus, aware of this, said to them, “Why do you trouble the woman? Fo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11 For you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12 In pouring this ointment on my body, she has done it to prepare me for burial.

13 Truly, I say to you, wherever this gospel is proclaimed in the whol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억울함을 참을 수 있습니까?

When you are faced with an unfair situation, can you accept unfairness against yourself for the benefit of others?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에 대해 제자들이 분개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9절)

What was the real reason why the disciples of Jesus were upset with the woman who poured the perfume on Jesus? (vv. 8-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 이종범(NY)
뉴욕반석교회, 김동규(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Our Life by Itself Must Be the Worship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제자들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여인의 돈을 욕심내며 탐욕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를 자신의 영광된 죽음을 예비한 행위로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인의 향유가 아닌 그녀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고 있을까요? 교회에 설교가 없어서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고, 목사가 먹사로 불리며, 믿는 것들이 더 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존재하되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설교의 내용이 좋다, 나쁘다'만 판단하면서 내가 들은 설교대로 살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후 설교자에게 하는 인사말은 그렇게 하기로 맞춘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은혜받았습니다." 이 말은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듣기만 잘 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니,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제로'의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예배가 되는 자이어야 합니다.

Jesus was without sin but was facing an unfair death. As the death of Jesus was imminent the disciples of Jesus showed greed for money as they coveted the value of the perfume that the woman poured on Jesus. But Jesus praised the deeds of the woman as preparation for His glorious death and said that her deeds would be remembered for eternity. The woman's deeds, not the perfume, became the aroma of Christ. The life of Christians should be the aroma of Christ. That is, every moment of a Christian's life should be the life of worship. Glory be to God.

Is the aroma of Jesus permeating from the church today and from the life of Christians? People do not criticize and accuse churches because there is no sermon at the church. There are sermons but the preachers do not practice what they preach. Those who listen to the sermons do not manifest the will and effort to live according to the preaching but instead judge how good or bad the sermons are. The reaction of those who listen to sermons is similar as though agreed upon in advance, "I received lots of grace." This should instead be understood as, "I heard your sermon." The sermon was well heard. The sermon was well delivered and well heard but the acts to live into the Word do not follow, and the result is now we live in a world where the effect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is insignificant. For Christians, their life should be their worship.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06

2023 APR
목요일·Thu

나는 어떤 사람인가?

What Kind of Person
Am I?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고난주간 5일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 새290장(통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묵상본문

통독본문

마가복음 14:66-72

마가복음 14:12-72

66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67베드로가 불 쪼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 갈새

69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 니라

71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 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Reading Insight

On the fifth day of Passion Week, Jesus had the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finished praying at the Gethsemane mount and was arrested. Though Jesus was absolutely without sin, He chose to follow the hard road. But all His disciples fled and even Peter denied Jesus.

🎵 From Every Stormy Wind That Blows

Meditation

Reading Plan

Mark 14:66-72

Mark 14:12-72

66 And as Peter was below in the courtyard, one of the servant girls of the high priest came,

67 and seeing Peter warming himself, she looked at him and said, “You also were with the Nazarene, Jesus.”

68 But he denied it, saying, “I neither know nor understand what you mean.” And he went out into the gateway and the rooster crowed.

69 And the servant girl saw him and began again to say to the bystanders, “This man is one of them.”

70 But again he denied it. And after a little while the bystanders again said to Peter, “Certain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 are a Galilean.”

71 But he began to invoke a curse on himself and to swear, “I do not know this man of whom you speak.”

72 And immediately the rooster crowed a second time. And Peter remembered how Jesus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And he broke down and wep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킨 것과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27-31절)

Let us think about what promises we have kept for God and those we have not kept.
(vv. 27-31)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감춘 적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If I intentionally hide my identity as a Christian, what is the reason?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베델교회, 김영식(NY)
뉴욕성서교회, 김종일(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라

Keep the Identity of Christians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숨겼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죄를 행하며 세상을 무서운 곳으로 만드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무력한 방관자, 그리고 무서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기를 포기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두 번째, 두려움으로 인해 죄악을 바라보기만 하던 무기력한 방관자였습니다.

교회를 가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예쁘게 화장도 한 후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종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의 탈을 벗어버리고 악하게 살아가고, 더욱이 교회에서 각종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교회를 악인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집에 오게 되면 화장을 지우고 입고 갔던 옷을 벗어버리게 되는데, 교회를 벗어난 후 화장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다 지워버리고, 또한 옷만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까지 다 벗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숨겼던 베드로에게는 극심한 자책의 고통이 주어졌을 뿐이었습니다. (72절)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동일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통곡을 한 것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Though Peter was the dearest disciple of Jesus, he had given up and hidden his identity as a disciple when facing distress and fear of death. There exist three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people who commit sins and make the world a dreadful place; people who are powerless observers who just watch those sins; and people who live righteous lives by refusing to compromise to sin in spite of the dreadful world. Peter was the second type, he was a powerless observer just watching sin because of his fear.

Most people follow a certain routine on Sunday; they take a shower, put on make-up, dress up, then go to church and attend worship service looking holy and serve in various ministries. But some throw away all forms of that Christian image and turn into evil as soon as they leave the church. Furthermore, some indulge in all kinds of disputes and conflicts and turn the church into a den of evildoers. After leaving church and returning home, we remove our make-up and throw off the clothes we wore. However, when we return home from church and remove our make-up, I wonder if we remove our identity as Christians as well, and when we throw off our clothes, I wonder if we throw off the responsibility, duty, and mission as people of God as well. When Peter tried to hide that he was a disciple of Jesus, he was laden with the severe pain of self-blame (Mark 14:72). The fact that they betrayed Jesus means that Peter and Judas Iscariot were the same. It is exactly the same in that they both wept in pain and sorrow. But Peter was used as a great disciple once he restored his identity upon repenting. What kind of person am I in front of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7

2023 APR
금요일 • Fri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

The Death of Jesus
Who Was
without Si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고난주간 여섯 번째 날, 예수님께서 오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귀하신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 새150장(통135장) 갈보리산 위에

묵상본문

통독본문

요한복음 19:17-30

요한복음 19장

17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Reading Insight

Jesus died today for me on the sixth day of Passion Week. Christ carried all our sins and offered His glorious body to the cross.

🎵 On a Hill Far Away

Meditation

Reading Plan

John 19:17-30

John 19장

17 and he went out, bearing his own cross, to the place called The Place of a Skull, which in Aramaic is called Golgotha.

18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with him two others, one on either side, and Jesus between them.

19 Pilate also wrote an inscription and put it on the cross. It read,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20 Many of the Jews read this inscription,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he city, and it was written in Aramaic, in Latin, and in Greek.

21 So the chief priests of the Jews said to Pilate, "Do not write, 'The King of the Jews,' but rather, 'This man said, I am King of the Jews.'"

22 Pilate answe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23 When the soldiers had crucified Jesus, they took his garments and divided them into four parts, one part for each soldier; also his tunic. But the tunic was seamless, woven in one piece from top to bottom,

24 so they said to one another, "Let us not tear it, but cast lots for it to see whose it shall be." This was to fulfill the Scripture which says, "They divided my garments among them, and for my clothing they cast lots." So the soldiers did these things,

25 but standing by the cross of Jesus were his mother and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26 When Jesus saw his mother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is mother, "Woman, behold, your son!"

27 Then he said to the disciple, "Behold, your mother!" And from that hour the disciple took her to his own home.

28 After this, Jesus, knowing that all was now finished, said (to fulfill the Scripture), "I thirst."

29 A jar full of sour wine stood there, so they put a sponge full of the sour wine on a hyssop branch and held it to his mouth.

30 When Jesus had received the sour wine, he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아니면 교회를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given up your profit and sacrificed yourself for others or the church?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다 이루었다"며 기쁘게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30절)

What do you think Jesus saw on the cross that made Him proclaim, "It is finished" and die with joy? (John 19:3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주나목교회(NY)
뉴욕한인교회, 최현덕(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Who Killed Jesus?

고난주간 제6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가상칠언)을 묵상하며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7언

1.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2.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 19:26-27)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15:34)
5. “내가 목마르다.” (요 19:28)
6. “다 이루었다.” (요 19:30)
7.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가리키는 내 손가락은 항상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죄인은 항상 ‘저 사람’입니다. 죄인을 향한 내 손가락의 방향이 나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On the sixth day of Passion Week. Let us meditate on the final words of Jesus on the cross (the seven last sayings of Jesus) and think about the road to the cross that Jesus had to persevere for me.

The seven last sayings of Jesus:

1.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Luke 23:34)
2.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uke 23:43)
3. “Dear woman, here is your son. Here is your mother.” (John 19:26-27)
4. “Eloi, Eloi, lama sabachthani?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ark 15:34)
5. “I am thirsty.” (John 19:28)
6. “It is finished.” (John 19:30)
7.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Luke 23:46)

As we see from these last words of Jesus, Jesus died on the cross enduring six hours of pain from 9 o'clock in the morning until 3 o'clock in the afternoon. Jesus died for me. The finger of mine that is meant to target a sinner always points to others. The sinner to repent is always “the other guy.” The finger to target the sinner should point to me. That is “metanoia.” Confessing that I am the sinner who caused the death of Jesus is the beginning of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08

2023 APR
토요일 • Sat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Jesus Died for
My Si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의 차가운 눈총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간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며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 새149장(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묵상본문

통독본문

마태복음 27:57-66

마태복음 27:57-66

-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Reading Insight

In spite of the watchful eyes of hostile Jews, Joseph of Arimathea courageously buried Jesus' body in the new tomb that was already prepared for himself. But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went to Pilate, suggested that the disciples of Jesus might steal Jesus' body and falsely claim that he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asked Pilate to make the tomb secure and post the guard.

🎵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Meditation

Reading Plan

Matthew 27:57-66

Matthew 27:57-66

57 When it was evening, there came a rich man from Arimathea, named Joseph, who also was a disciple of Jesus.

58 He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Then Pilate ordered it to be given to him.

59 And Joseph took the body and wrapped it in a clean linen shroud

60 and laid it in his own new tomb, which he had cut in the rock. And he rolled a great stone to the entrance of the tomb and went away.

61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re there, sitting opposite the tomb.

62 The next day, that is, after the day of Preparatio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gathered before Pilate

63 and said, "Sir, we remember how that impostor said, while he was still alive, 'After three days I will rise.'

64 Therefore order the tomb to be made secure until the third day, lest his disciples go and steal him away and tell the people,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the last fraud will be worse than the first."

65 Pilate said to them, "You have a guard[j] of soldiers. Go, make it as secure as you can."

66 So they went and made the tomb secure by sealing the stone and setting a gua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57절)

What was the identity of Joseph of Arimathea that he considered most important as a member of the Sanhedrin? (v. 57)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죄를 덮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Those who try to hide their sins are bound to continue to commit other sins in order to keep their earlier sins hidden. Do you have such experience?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눔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로체스터제일교회, 이진국(NY)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동기(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We Should Be the Stepping Stone Not the Stumbling Block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죄를 합리화하는 강퍅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을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기도회 등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최선을 다해 교회 안에서 봉사에 힘씁니다. 그러나 교회의 그런 역동성이 교회 밖 현실에 대한 참여와 지혜로운 분별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각종 봉사를 통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성찰하여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면, 한국교회는 사회 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이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ろ거리와 뒷담화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묵상해 봅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가정의 걸림돌, 직장의 걸림돌, 이웃의 걸림돌,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Jesus died and was buried in the tomb because of our hardened and calloused spirit that tries to justify our sins and refuse to repent. The first thing I must do in front of Jesus being laid in the tomb is to acknowledge my sins and repent, not try to justify why I am a sinner. Most Korean churches assemble for worship services on Sunday, mid-week worship services on Wednesday evening, and other prayer services, etc. Members pay attention to the Word of God and serve various ministries in the church. However, such inner vitality of the church does not connect to participation in real world situations outside or wise discernment. If we participated in and contributed to society with God given understanding as we distinguish and discern the trends of the contemporary period through our worship services, prayers and various services, I believe Korean churches would have become the stepping stone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ety, not the stumbling block. Now churches and believers have become the stumbling block for our society. We have become the talk of the town and source of gossip. People worry that Korean Christianity runs counter to the Word of God and wise discernment.

Let us look back at ourselves and our churches. Unknowingly, I might have become the stumbling block for my family, my workplace, my neighbors, and my church. We must become the stepping stone, not the stumbling block. Our daily life should be the actual worship service and the kingdom of God should be planted where we stand. Our church should be the steady stepping stone to support the world. That is only possible when we keep praying and live our lives practicing the Word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9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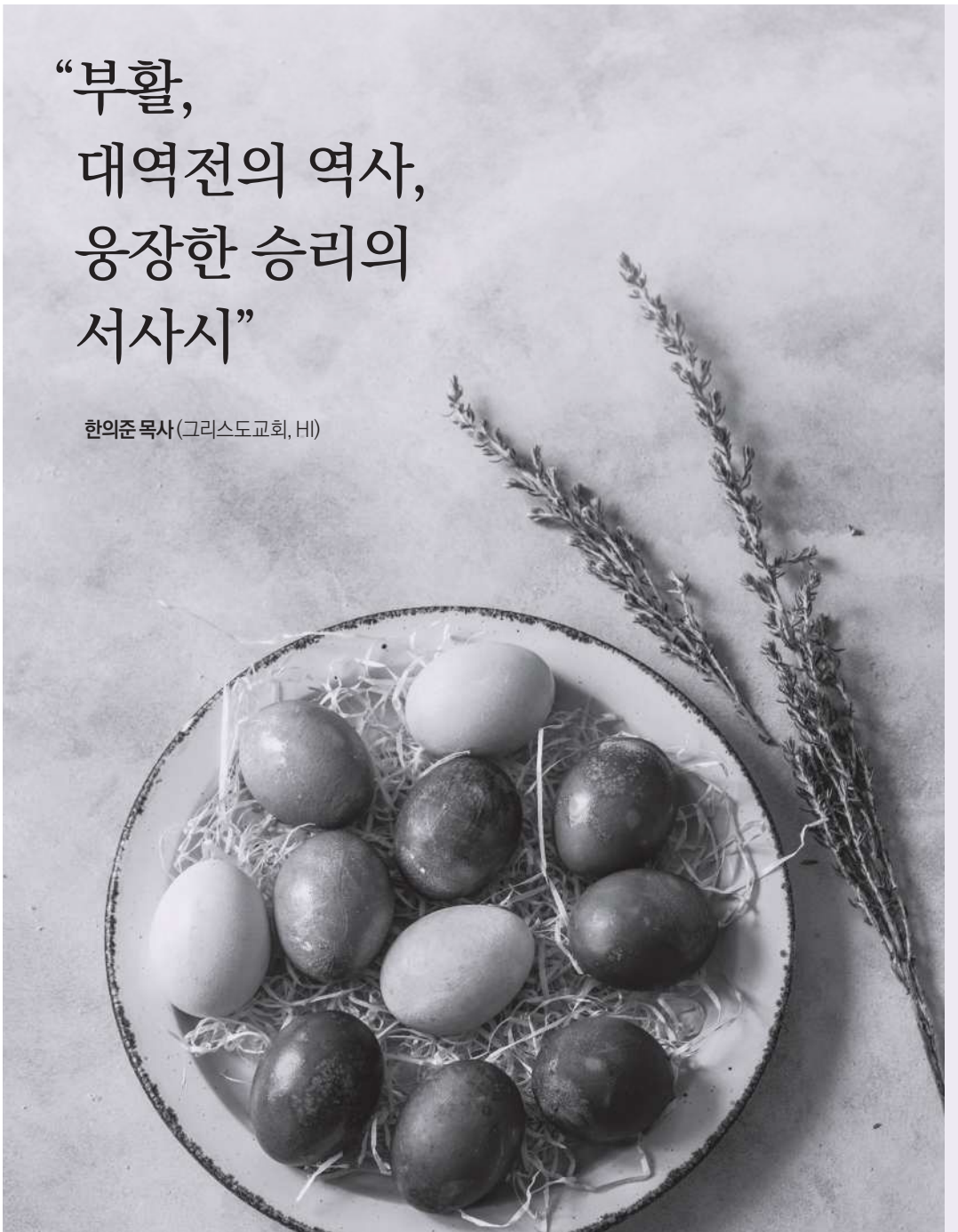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부활, 대역전의 역사, 웅장한 승리의 서사시”

한익준 목사(그리스도교회, HI)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즐거웠던 시간이 허망한 일장춘몽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헛된 꿈이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패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완벽한 승리로 판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져 있던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은 부활이 실재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이 삶을 위협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실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보이지 않고 삶이 통째로 없어질 것 같은 절망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 모든 장애와 죽음마저 이기고 끝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부활은 대역전의 역사이자, 웅장한 승리의 서사시입니다. 참혹한 전쟁도 결코 부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어코 다가올 평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한 우리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삶의 고난에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삶의 어떠한 실패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모두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10

2023 APR
월요일 • Mon

유다의 왕이 된 다윗

David Became
the King of Juda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의 왕권 확립 과정이 시작됩니다. 다윗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사울 가문의 몰락과 다윗 가문의 확고한 위상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 새10장(통34장) 전능왕 오셔서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2:1-7

사무엘하 2장

1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2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Reading Insight

Upon the death of Saul, the process of establishing David's kingship began. The fall of the household of Saul, who resisted David until the end, and the firm authority of the family of David were the clear providence of God who rewards those according to their deeds in front of God.

🎵 Come, Thou Almighty King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2:1-7

2 Samuel 2

1 After this David inquired of the Lord, "Shall I go up into any of the cities of Judah?" And the Lord said to him, "Go up." David said, "To which shall I go up?" And he said, "To Hebron."

2 So David went up there, and his two wives also, Ahinoam of Jezreel and Abigail the widow of Nabal of Carmel.

3 And David brought up his men who were with him, everyone with his household, and they lived in the towns of Hebron.

4 And the men of Judah came, and there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the house of Judah. When they told David, "It was the men of Jabesh-gilead who buried Saul,"

5 David sent messengers to the men of Jabesh-gilead and said to them, "May you be blessed by the Lord, because you showed this loyalty to Saul your lord and buried him.

6 Now may the Lord show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to you. And I will do good to you because you have done this thing.

7 Now therefore let your hands be strong, and be valiant, for Saul your lord is dead, and the house of Judah has anointed me king over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다윗의 어떠한 성품과 인격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4-6절)
What character and integrity of David made God want him to be the king of Israel? (vv. 4-6)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의지를 끝까지 고집하며 행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done anything, maintaining your own thoughts and will to the end, while you knew that it was not God's will?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김재현(NY)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김진우(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나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Am I Worthy of Receiving the Blessing?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우리의 말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언행에 의해 나타나고 증거 되는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과 언행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 내게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무조건 그것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게 기쁨과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스스로 단정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어렵게 그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내게 이익이 아닌 손해가 주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사탄이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면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 중 내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복 받을 만했던 다윗은 다윗은 축복을 받았으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사울은 축복이 아닌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God judges us in accordance with our deeds observed by Him and our words heard by Him. God judges us in accordance with our character and integrity expressed and manifested through our deeds and words and our essence as Christians. Ultimately, do my life, deeds and words manifest if I am worthy of receiving the blessing of God?

We tend to justify the will and grace of God unconditionally bestowed on us if things are to our benefit and profit and as long as they look good to us based on our own thoughts and judgment. What seems good to my eyes and brings joy and benefit to me triggers my thoughts as I immediately judge it as God sent. However, how should we react if certain thoughts were given by God, but the road to follow is difficult and by following the road we may end up losing instead of gaining? To God who gave the thought, we would shout, “Go away Satan! Satan confused my mind.” We try to justify the mind of God as the temptation of Satan and we tend to refuse the thoughts given by God.

Between the will of God and my own will, where is my life focused? Saul and David were both chosen and anointed as kings of Israel by God. David was blessed because his life was worthy of receiving the blessing, but Saul was judged, not blessed, because his life was not in line with the will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11

2023 APR
화요일 • Tue

다윗의 지도자적 역량

Capacity of David
as a Lead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거국적이고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이스라엘 왕국 통일의 걸림돌이었던 아브넬을 포용하는 다윗의 지도자적 역량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새354장(통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3:12-21

사무엘하 3-4장

12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13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15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16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17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19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20아브넬이 부하 이십 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21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Reading Insight

God's providence is manifested for the good of Israel through David's capacity as a leader, especially his forward-thinking and nationalistic view allowing him to accept Abner who was a stumbling block for uniting the Kingdom of Israel.

🎵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3:12-21

2 Samuel 3-4

12 And Abner sent messengers to David on his behalf, saying, "To whom does the land belong? Make your covenant with me, and behold, my hand shall be with you to bring over all Israel to you."

13 And he said, "Good; I will make a covenant with you. But one thing I require of you; that is, you shall not see my face unless you first bring Michal, Saul's daughter, when you come to see my face."

14 Then David sent messengers to Ish-bosheth, Saul's son, saying, "Give me my wife Michal, for whom I paid the bridal price of a hundred foreskins of the Philistines."

15 And Ish-bosheth sent and took her from her husband Paltiel the son of Laish.

16 But her husband went with her, weeping after her all the way to Bahurim. Then Abner said to him, "Go, return." And he returned.

17 And Abner conferred with the elders of Israel, saying, "For some time past you have been seeking David as king over you.

18 Now then bring it about, for the LORD has promised David, saying, 'By the hand of my servant David I will save my people Israel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and from the hand of all their enemies.'"

19 Abner also spoke to Benjamin. And then Abner went to tell David at Hebron all that Israel and the whole house of Benjamin thought good to do.

20 When Abner came with twenty men to David at Hebron, David made a feast for Abner and the men who were with him.

21 And Abner said to David, "I will arise and go and will gather all Israel to my lord the king, that they may make a covenant with you, and that you may reign over all that your heart desires." So David sent Abner away, and he went in pea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 감정과 의지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Can I treat the will and the providence of God more importantly than my own feelings and will?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였던 사울 가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화합과 포용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14절)

How do we know that David considered the household of Saul who opposed him not as an enemy but as an object of unity and embrace? (vv. 13-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

A Big Man in Front of God

그리스도인이 세상적, 신앙적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서 '시간'을 조정하고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신앙 생활에 관계된 시간을 줄입니다. 교회에 두 번 가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번 가던 것을 아예 가지 않으며, 교회에서 봉사하던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돈을 줄여야 할 상황이 되면 헌금과 같은 교회에 관련된 돈과 비용을 제일 먼저 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관념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줄여야 할 때, 제일 먼저 신앙에 관련된 것을 포기하고 줄이는 것일까요? 초대 교회 시절에, 그리고 한국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신앙 생활하며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신앙의 세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즉 선민으로 선택받았으나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람으로 선택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성숙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Faith is often the first thing that most Christians give up when faced with worldly and religious problems. When faced with certain difficulties and problems, and if "time" needs to be adjusted and cut back, the first things people reduce are faith-related. People cut back church attendance from two times a week to one, from one to none, and then eliminate all service activities at the church. If saving becomes necessary, the first thing to be reduced is the offering and church related spending. Let us think about the concept of our faith as Christians. If we need to reduce our expenses or give up something as Christians, why do we first reduce or give up our faith-related items? During the early church period 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Christians risked their lives to keep their faith and sometimes gave their lives in order to not give up their faith. If we had to risk our lives to keep our faith under the current religious world, how many people do you think would remain on the side of God to the end?

We live in a period that calls for a chosen person in front of God who is recognized by God. Israel was chosen by God as the chosen people and as people of God but was no longer considered "chosen"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and was judged by God. Since Israel could not fulfill their mission as a chosen people of God, God has chosen us Christians as a new spiritual Israel to replace the people of Israel. Having now been "chosen," am I growing and living as a chosen person? We must become a "chosen person" honoring the will of God as most dear to us.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 유명철(NY)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태(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2

2023 APR
수요일 • Wed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David Became
the King of
the United Kingdom
of Isra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전 이스라엘의 통치권의 향방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넘어옴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5:1-5

사무엘하 5장

1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2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4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되

5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Reading Insight

As the reign over all Israel was handed over to David, a man of God, the true kingdom of a united Israel was realized as God had planned. God always makes His promise realized.

🎵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5:1-5

2 Samuel 5

- 1 Then all the tribes of Israel came to David at Hebron and said, "Behold, we are your bone and flesh.
- 2 In times past, when Saul was king over us, it was you who led out and brought in Israel. And the LORD said to you, 'You shall be shepherd of my people Israel, and you shall be prince over Israel.'"
- 3 So all the elders of Israel came to the king at Hebron, and King David made a covenant with them at Hebron before the LORD, and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Israel.
- 4 David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forty years.
- 5 At Hebron he reigned over Judah seven years and six months, and at Jerusalem he reigned over all Israel and Judah thirty-three year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누구의 뜻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까? (2절)

Whose will and providence was it that David became the king of Israel? (v. 2)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Has any promise God made for me been realized through me?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 이재현(NY)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이호승(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The Promise of God Is the Covenant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다윗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며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이었고,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이 언약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지켜지고 이행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미래를 성취하여 주시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제 통장의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빌려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기에 어머니만이 유일한 채무 추심의 대상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을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저도 아내에게 결혼하면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들, 자녀에게 약속했던 것들, 또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해 주겠다'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기도의 빚들이 여전히 많이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여 주십니다. 미래를 다 아시며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약속은 성취율 100%의 언약입니다.

With the support and approval of the entire people of Israel, David was crowned as the king of the kingdom of Israel that was united through official and legal ways. It was the culmination of the providence of God as David was anointed by Samuel who prophesied such and was fulfillment of the covenant of the blessing of God for the tribe of Judah. "Covenant" is the promise made by God with us. The promise between humans has no guarantee to be kept, but the covenant of God is a guarantee of the future achievement that is determined a priori by God.

When I was young, my parents borrowed money from my savings account with the promise of "we will definitely pay it back." But after 40 years, I have not received the money back. My father passed away so that my mother is the only remaining party for the collection of the debt. But collection of the money remains a remote possibility. I owe the broken promises I made to my wife before I got married, and promises broken to my children, and a pile of unkept promises of prayers to lay people as a pastor that "I will always pray for you." There is no guarantee that promises made between human beings will be kept. However the covenant of God is about something that has not happened yet but is determined a priori by God so that it will be shaped, formed and done by God. God can look at the future and completely control and manage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human beings so that His promise is 100% certain to be realiz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13

2023 APR
목요일·Thu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Only as God Sai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왕권을 확립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선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뻐야 할 때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통치의 본질과 원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 새516장(통265장) 옴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묵상본문

사무엘하 6:1-11

통독본문

사무엘하 6장

-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삼만 명을 다시 모으고
- 2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 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 4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 6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 7 여호와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니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 8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 9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 10 다윗이 여호와와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 11 여호와와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벰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Reading Insight

After securing his throne, David brings back the Ark of the Lord from Kiriath Jearim in order to reinforce the identity of his people as God's chosen nation. In the process, God shows David that the essence and heart of his reign lies in doing "only as God said."

🎵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6:1-11

2 Samuel 6

1 David again gathered all the chosen men of Israel, thirty thousand.

2 And David arose and went with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from Baale-judah to bring up from there the ark of God, which is called by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who sits enthroned on the cherubim.

3 And they carried the ark of God on a new cart and brought it out of the house of Abinadab, which was on the hill. And Uzzah and Ahio, the sons of Abinadab, were driving the new cart,

4 with the ark of God, and Ahio went before the ark.

5 And David and all the house of Israel were making merry before the LORD, with songs and lyres and harps and tambourines and castanets and cymbals.

6 And when they came to the threshing floor of Nacon, Uzzah put out his hand to the ark of God and took hold of it, for the oxen stumbled.

7 And the anger of the LORD was kindled against Uzzah, and God struck him down there because of his error, and he died there beside the ark of God.

8 And David was angry because the LORD had burst forth against Uzzah. And that place is called Perez-uzzah, to this day.

9 And David was afraid of the LORD that day, and he said, "How can the ark of the LORD come to me?"

10 So David was not willing to take the ark of the LORD into the city of David. But David took it aside to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11 And the ark of the LORD remained in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three months, and the LORD blessed Obed-edom and all his househol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던 옷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6-7절)

Why did Uzzah, who was transporting the Ark of the Lord on a cart, die? (vv. 3, 6-7)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12-13절)

How was one supposed to transport the Ark of the Lord, and what did the Lord teach David through this event? (vv. 12-1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떡이 나옵니다

You Will Be Blessed If You Listen to God

제 아버님이 우리 4형제에게 주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아내 말 잘 들어서 손해 볼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 말 잘 듣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아내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바로 ‘그래도 내가 남잔인데’ 하는 자존심과 가부장적 ‘마초’ 기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명히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명의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극복하는 능력,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힘, 영생과 천국 등과 같은 축복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이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인간적 지혜, 내 주장과 판단, 나의 의지와 자존심, 성공과 번영이라는 말로 합리화하는 욕심과 탐욕,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와 존재를 주장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There is wisdom my father passed down to me and my three other siblings that has been a big help in my life. It is this: “Listen to the woman in your life and all will go well with you.” My father was right. You can’t lose by listening to your wife. But there is one thing that I must do first in order to listen to my wife. Without doing this first, I will not be able to listen to my wife. It is laying down my ego that always wants to assert my pride and “macho-ness” as a man.

There’s a saying in Korean, “If you listen to your parents, you will get a rice cake even when you sleep (and not work).” It is also like that with God. When we listen to God, we will be blessed even when we don’t even try to get the blessings. This is one of the main teachings in the Bible. Jesus said “I will give you the bread of life.” What do you think is meant by “giving the bread of life?” It refers to the power to overcome sin, experiencing God’s joy and peace, having the strength to overcome trials, the gift of eternal life and heaven and other blessings and graces of God. When we listen to God, we will experience these and other “bread of life (rice cakes).” But in order to do this, we also need to lay down things like human wisdom, our stubborn pride and unbending will, greed and avarice, and selfishness and arrogance. It is only when we lay down all those things that result from our own ego and self-centered ways that we will be able to live our life as blessed people of God.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정광원(NY)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 양현주(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4

2023 APR
금요일 • Fri

다윗을 위한 언약

The Promise
for Davi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본문은 유명한 '다윗 언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가상한 마음을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 새210장(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7:8-17

사무엘하 7장

8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records God's well-known promise for David. God, who looked favorably upon the beautiful heart of David, promises to bless David's dynasty.

🎵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7:8-17

2 Samuel 7

8 Now, therefore, thus you shall say to my servant David, 'Thus says the LORD of hosts, I took you from the pasture, from following the sheep, that you should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9 And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went and have cut off all your enemies from before you. And I will make for you a great name, like the name of the great ones of the earth.

10 And I will appoint a place for my people Israel and will plant them, so that they may dwell in their own place and be disturbed no more. And violent men shall afflict them no more, as formerly,

11 from the time that I appointed judges over my people Israel. And I will give you rest from all your enemies. Moreover, the LORD declares to you that the LORD will make you a house.

12 When your days are fulfilled and you lie down with your fathers, I will raise up your offspring after you, who shall come from your body,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13 He shall build a house for my name, and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ever.

14 I w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When he commits iniquity, I will discipline him with the rod of men, with the stripes of the sons of men,

15 but my steadfast love will not depart from him, as I took it from Saul, whom I put away from before you.

16 And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be made sure forever before me. Your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17 In accordance with all these words, and in accordance with all this vision, Nathan spoke to Davi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How would you describe David's heart and faith toward God? (vv. 1-2)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망을 거절하신 후 그의 후손에 의한 성전 건축과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내 기도의 거절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결실로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After rejecting David's desire for building a temple for God, God promised to let his descendant build a temple and to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ever. Have you ever experienced an unanswered prayer in your life leading to a greater blessing?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진성인(NY)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 유화성(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What Is My Religion?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와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망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그 자손을 통한 성전의 건축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라는 축복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영원한 가치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는 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세상과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나를 위한 세상과 나를 위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기뻐야 세상이 정상인 것이고, 내가 잘 되어야 이 사회가 정의로운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여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나의 기쁨과 만족만을 축복이라 여기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닌 내가 주인 되는 '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교' 성도인가요, 아니면 '나의 종교' 교인인가요?

David's life-long dream was to build a temple for God but God outright rejected David's passionate desire. Despite experiencing God's rejection, David continued to obey God's will and thanked God in all things. To this David, God promised to bless him by establishing David's throne forever and having his descendant build a temple for God. Through the blessing of David's enduring throne and kingdom, God foreshadowed the blessing of establishing God's kingdom in this world through one of David's descendants, Jesus the Christ.

Ask yourself: Am I anticipating the kingdom of God to be established in this world or am I seeking to establish my own kingdom where I am the king? It seems to me that many Christians want the world to revolve around them and are hoping for a future where their own desires are realized. In other words, they want to take the place of God and want the world and the blessings for their own benefit. To them, life is good only when they are happy, the world is just only when they prosper, and God is alive only when all of their hopes are realized. When we demand the world revolve around us and have faith that considers only those things that please and satisfy us as blessings, that faith is no longer a Christian faith but simply "my religion" where I am the master. Are you a follower of the "Christian faith" or are you a follower of "my relig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15

2023 APR
토요일 • Sat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The Lord
Who Gives Victor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다윗으로 인해 신본주의 국가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근동지역의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였던 다윗을 언제나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 새358장(통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8:1-12

사무엘하 8-9장

- 1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암마를 빼앗으니라
- 2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 3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테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 4 그에게서 마병 천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 5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 6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 8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 9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 10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 11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 12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Reading Insight

Through David's leadership, Israel renewed itself as a theocentric (God-centered) nation and became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Near Eastern region as it enjoyed victories in all its battles. The Lord gave David victories in all his battles because David honored the Lord in all his ways.

🎵 There's a Royal Banner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8:1-12

2 Samuel 8-9

1 After this David defeated the Philistines and subdued them, and David took Metheg-ammah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2 And he defeated Moab and he measured them with a line, making them lie down on the ground. Two lines he measured to be put to death, and one full line to be spared. And the Moabites became servants to David and brought tribute.

3 David also defeated Hadadezer the son of Rehob, king of Zobah, as he went to restore his power at the river Euphrates.

4 And David took from him 1,700 horsemen, and 20,000 foot soldiers. And David hamstringed all the chariot horses but left enough for 100 chariots.

5 And when the Syrians of Damascus came to help Hadadezer king of Zobah, David struck down 22,000 men of the Syrians.

6 Then David put garrisons in Aram of Damascus, and the Syrians became servants to David and brought tribute. And the LORD gave victory to David wherever he went.

7 And David took the shields of gold that were carried by the servants of Hadadezer and brought them to Jerusalem.

8 And from Betah and from Berothai, cities of Hadadezer, King David took very much bronze.

9 When Toi king of Hamath heard that David had defeated the whole army of Hadadezer,

10 Toi sent his son Joram to King David, to ask about his health and to bless him because he had fought against Hadadezer and defeated him, for Hadadezer had often been at war with Toi. And Joram brought with him articles of silver, of gold, and of bronze.

11 These also King David dedicated to the LORD, together with the silver and gold that he dedicated from all the nations he subdued,

12 from Edom, Moab, the Ammonites, the Philistines, Amalek, and from the spoil of Hadadezer the son of Rehob, king of Zoba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섭리는 무엇입니까? (6, 14절)

What is one principle of God's care and guidance for God's own people? (vv. 6, 14)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1-12절)

Why was God's power and authority with David, allowing him to enjoy victory in all things? (vv. 11-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우리감리교회, 김동현(NY)
웨체스터중앙교회, 신승호(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믿음의 경주

The Race of Faith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경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지만 승리의 과정은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스포츠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인데, 승리라는 목적에만 집착하여 도핑, 심판 매수, 반칙, 부당한 압력과 같은 각종 불법적 스포츠 비리를 행하며 경주의 순수성을 훼손시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잠깐 출석하던 교회에서 그 지역 교회 대항 축구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 중 상대방 교회 선수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대뜸 저에게 쌍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옆에 있던 분이 “이 분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라며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이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사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 새끼야!” 스포츠맨십을 상실한 언행이었습니다. 경주는 승리의 과정과 이겨야 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경주는 ‘믿음의 경주’이어야 하며, 믿음의 경주가 다른 경주와 가장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특징은 이타적이며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께 이기는 자로 만들고 승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아닌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기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We can describe the life of a believer in this world as a “race.” Although the ultimate goal of any race is victory, the victory has to be won in legitimate ways. When athletes become so obsessed with victory, they may resort to activities that violate the spirit of true sportsmanship such as doping, referee bribery, cheating, and other unfair and illegal actions. Soon after I came to America, I participated in a soccer tournament held by churches in the area and represented the church that I was attending at the time. During one of the matches I was playing, there was heavy body checking with a player from another church. In the heat of the moment, the other player out right cursed at me using profane words. I was flabbergasted by the reaction from this player in a church soccer match. When a player from my team tried to intervene and tell the other player that I am an assistant pastor of the church, the other player blurted out even worse profanity saying, “Who the **** cares!!??” It was clearly a moment when the spirit of true sportsmanship was lost. In a race, how one wins is just as important as winning itself.

The race that all believers run is a “race of faith” and the things that make this race different from all other races is that it should be altruistic and spiritual. The true race of faith is a race where the goal is helping everyone to emerge as a winner and where the ultimate glory and honor is given to the Lord. David was always focused on the victory of Israel over his personal victory and glorifying God through his victories. This was the secret that enabled him to have victories wherever he wen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6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다윗과 어거스틴의 참회

〈시편 51:1-19〉

홍성국 목사 (평촌감리교회, 경기)

다윗의 범죄와 참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이상적인 왕은 ‘다윗’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나라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키고 안정된 정치를 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예술가로서 수많은 시편을 쓴 시인이요, 음악가였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삼상 13:14)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마 1장)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그의 생애 속에서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된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지 않고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삼하 11장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하고 임신이 되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하였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한 것이다. 이러한 다윗의 음모는 성공을 거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다. 그리고 당신의 종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어 폭로케 하셨다. (삼하 12:1-9) 시편 51편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록한 참회의 시이다. 이 시는 애절하고도 가슴아픈 시이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성이 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범죄 한 후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정욕 탈출기: 죽기 전에 시편 51편을 침대 맞은편에 걸어놓고 외우고 참회의 눈

물을 흘리다가 430년에 76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성 어거스틴(354-430)이다. 그는 기독교 사상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교부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교회의 감독이요, 저술가요, 역사가요, 수사학자였지만 한평생 동안 내면에서 갈등하고 씨름했던 문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 문제였다. 특히 “고백록”에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

그는 청년기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주소서. 나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감각적인 쾌락으로 만족하려는 욕망으로 불타 있어 여러 가지 허망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17세 때 가슴에 차오르는 정욕을 참을 수가 없어 한 여자를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자식까지 낳게 되었다. 하지만 그 여자와 강제로 헤어져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았지만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 겉으로는 말짱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을 강하게 묶고 있는 욕망의 쇠사슬을 보았지만 그것을 끊어 버릴 힘이 없었다.

그러던 386년 7월 어느 날,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였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귀에 들렸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tolle lege, tolle lege).” 어거스틴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즉시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펴 들었고,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롬 13:13-14) 이 말씀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다. 마침내 오랫동안 그를 칭칭 감고 있던 정욕과 쾌락으로부터 한순간 벗어나게 되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성서의 말씀과 그의 마음에 주입된 성령의 내적 역사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이제 내 영혼은 명예와 이득과 간질거리지는 정욕을 굶고 텅구는 괴로운 불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이 회심의 과정을 임신에 비유하였다. 정욕의 쇠사슬을 끊는 이 자유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개월의 반성과 씨름, 눈물의 기도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어거스틴의 어둠을 비추어(조명)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문제로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여, 저에게 싸울 힘을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시 70:1)

17

2023 APR
월요일 • Mon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Whatever for
the Glory of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聖戰)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이스라엘과 뚜렷한 명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전쟁은 필연적인 승패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 새352장(통390장) 십자가 군병들이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10:6-14

사무엘하 10장

6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훔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이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7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8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훔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9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 치고

10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 치게 하고

11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3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14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Reading Insight

The war between Israel, with its clear sense of purpose as a temple for God's glory, and the combined armies of Ammon and Aram, against God's people without a clear cause, was already determined by the inevitable outcome of victory or defeat.

🎵 Stand Up, Stand Up for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10:6-14

2 Samuel 10

6 When the Ammonites saw that they had become a stench to David, the Ammonites sent and hired the Syrians of Beth-rehob, and the Syrians of Zobah, 20,000 foot soldiers, and the king of Maacah with 1,000 men, and the men of Tob, 12,000 men.

7 And when David heard of it, he sent Joab and all the host of the mighty men.

8 And the Ammonites came out and drew up in battle array at the entrance of the gate, and the Syrians of Zobah and of Rehob and the men of Tob and Maacah were by themselves in the open country.

9 When Joab saw that the battle was set against him both in front and in the rear, he chose some of the best men of Israel and arrayed them against the Syrians.

10 The rest of his men he put in the charge of Abishai his brother, and he arrayed them against the Ammonites.

11 And he said, "If the Syrians are too strong for me, then you shall help me, but if the Ammonites are too strong for you, then I will come and help you.

12 Be of good courage, and let us be courageous for our people, and for the cities of our God, and may the LORD do what seems good to him."

13 So Joab and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drew near to battle against the Syrians, and they fled before him.

14 And when the Ammonites saw that the Syrians fled, they likewise fled before Abishai and entered the city. Then Joab returned from fighting against the Ammonites and came to Jerusal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

Why was Israel able to win the war against all enemies of God? (v. 12)

내 믿음과 신앙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의 이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Let me think honestly about what is more important to my life of faith: God's glory or my own interest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권즈중앙감리교회, 이요섭(NY)
후리싱제일교회, 김정호(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독재자 하나님

God the Dictator

우리 집에서 저와 딸이 아내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독재자’입니다. 우리 집은 아내의 뜻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가끔 딸 아이가 제게 “민주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엄마의 독재를 받아야 하나요, 아빠가 반항을 좀 해보라”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너는 왜 아빠에게 목숨을 걸라고 하느냐, 목숨을 걸려면 더 젊은 네가 걸어 보라.” 그러면서 “엄마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상에도 유리하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깃드는 길이다”라고 딸을 설득을 하곤 합니다. 사실 집에서 아내의 뜻대로 모든 것을 따라 주는 것이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은 나름의 삶의 지혜였습니다.

‘독재’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부정적인 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독재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민주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독재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 능케 하는 힘의 근원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독재가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독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과 축복의 본질입니다.

In our house, my daughter and I have a nickname for my wife. It's "dictator." Our house is a structure where everything is decided by the will of my wife. Sometimes when my daughter asks me, "Why do we living in a democracy have to be subject to our mother's dictatorship? Dad, why don't you rebel?" I jokingly replied, "Why do you ask me to risk my life? If anyone has to risk one's life, it is you, the younger one, who has to risk your life." I persuade my daughter that allowing my wife's will and way is beneficial for our life and is the way to peace for our family. In fact, I realized that following my wife's wishes at home is the best way for peace and harmony in the family. This is the wisdom of life that I learned through marriage.

Although the word "dictatorship" has a strong negative connotation, the truth is that our journey of faith and belief must be guided by God's dictatorship. Our relationship with God cannot be democratic. My obeying God's commandment is the life of faith and belief. For Christians, God the Dictator is the source of the power that makes the impossible possible, the essence of the power that brings about all that we see. God's dictatorship draw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is is the reason acknowledging God's tyranny over our lives is the essence of faith and bless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18

2023 APR
화요일 • Tue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 Coram Deo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계속되는 승리와 번영으로 인한 다윗의 교만과 나태가 밋세바와의 범죄를 유발했으며, 이를 통하여 다윗 왕국의 정치적, 영적, 군사적 절정기는 일단락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 새521장(통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11:1-13

사무엘하 11장

1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이까 하니

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6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면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7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8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9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10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12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13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Reading Insight

David's pride and sloth due to continued victories and prosperity led to his transgression against Bathsheba, bringing to a halt the political, spiritual, and military climax of David's kingdom and ushering in a new transition.

🎵 Straight Is the Gate to Salvation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11:1-13

2 Samuel 11

1 In the spring of the year, the time when kings go out to battle, David sent Joab, and his servants with him, and all Israel. And they ravaged the Ammonites and besieged Rabbah. But David remained at Jerusalem.

2 It happened, late one afternoon, when David arose from his couch and was walking on the roof of the king's house, that he saw from the roof a woman bathing; and the woman was very beautiful.

3 And David sent and inquired about the woman. And one said, "Is not this Bathsheba, the daughter of Eliam,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4 So David sent messengers and took her, and she came to him, and he lay with her. (Now she had been purifying herself from her uncleanness.) Then she returned to her house.

5 And the woman conceived, and she sent and told David, "I am pregnant."

6 So David sent word to Joab, "Send me Uriah the Hittite." And Joab sent Uriah to David.

7 When Uriah came to him, David asked how Joab was doing and how the people were doing and how the war was going.

8 Then David said to Uriah, "Go down to your house and wash your feet." And Uriah went out of the king's house, and there followed him a present from the king.

9 But Uriah slept at the door of the king's house with all the servants of his lord, and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10 When they told David, "Uriah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David said to Uriah, "Have you not come from a journey? Why did you not go down to your house?"

11 Uriah said to David, "The ark and Israel and Judah dwell in booths, and my lord Joab and the servants of my lord are camping in the open field. Shall I then go to my house, to eat and to drink and to lie with my wife? As you live, and as your soul lives, I will not do this thing."

12 Then David said to Uriah, "Remain here today also, and tomorrow I will send you back." So Uriah remained in Jerusalem that day and the next.

13 And David invited him, and he ate in his presence and drank, so that he made him drunk. And in the evening he went out to lie on his couch with the servants of his lord, but he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신정 왕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 다윗의 타락과 범죄는 무엇으로 인해 야기되었습니까? (1절)

What caused the fall and crimes of David, the great king who established the theocratic kingdom? (v. 1)

범죄의 어떠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8, 13, 15절)

For what nature of crime does God tell us not to imitate sin?
(vv. 8, 13, 1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데이튼한인연합교회, 유준식(OH)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 유보현(OH)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Coram Deo vs. Coram Hominibus

Coram Deo vs. Coram Hominibus

‘코람데오’(Coram Deo) 라틴어로, ‘Coram’은 ‘앞에’라는 뜻이고, ‘Deo’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믿음과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는 당연히 ‘코람데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보다는 ‘사람 앞에서(Coram Hominibus)’ 사는 세속적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을 나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Coram deo)’가 아닌 ‘사람 앞에서(Coram Hominibus)’ 살아가며 온갖 부끄러운 죄를 다 짓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십자가 앞에서, 제단 위에서 거룩하게 행동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제단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인간 숭배와 교회라는 건물과 관념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인간은 점점 더 높아지는 인간 숭배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으나, 옳지 않으나’,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오직 이것 만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Coram Deo” is Latin with “Coram” meaning “before” and “Deo” meaning “God.” Taken together, these two words mean “before God.” It is the Christian who seeks to follow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the faith of the apostles, and the faith of the Reformers. Then, of course, the indicator of the Christian’s life should be Coram Deo. But even for those who profess to believe in God, rather than trying to live “before God,” they are more likely to be “before men” (Coram Hominibus) living in a naturally secular way.

What good is it to live “Coram Hominibus” outside of the church instead of “Coram Deo,” barking at all kinds of shameful sins and acting holy before the cross and on the altar? This is why we worship the cross and the altar as idols. Isn’t there human worship of the pastor and idolatry of the building and the idea of the church among us? Even at this time, in the church of God, the glory of God is being obscured and man is becoming more and more exalted. If we are people of God we must return to the spirit of Coram Deo. The person of Coram Deo has only one criterion, “right or not right before God,” and “what is right before God,” by which everything is judg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9

2023 APR
수요일 • Wed

죄의 대가

The Price of Si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 새426장(통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12:7-15a

사무엘하 12장

7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의 엽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이제 네가 나를 엽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15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Reading Insight

Because God's grace was with David until the end, David repented and restored his relationship with God. But God has clearly demonstrated His providence to let the price of sin be paid even for those repented sins.

🎵 Lord Jesus, I Long to Be Perfectly Whole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12:7-15a

2 Samuel 12

7 Nathan said to David, "You are the man!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I anointed you king over Israel, and I delivered you out of the hand of Saul.

8 And I gave you your master's house and your master's wives into your arms and gave you the house of Israel and of Judah. And if this were too little, I would add to you as much more.

9 Why have you despised the word of the LORD, to do what is evil in his sight? You have struck down Uriah the Hittite with the sword and have taken his wife to be your wife and have killed him with the sword of the Ammonites.

10 Now therefore the sword shall never depart from your house, because you have despised me and have taken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to be your wife.'

11 Thus says the LORD, 'Behold, I will raise up evil against you out of your own house. And I will take your wives before your eyes and give them to your neighbor, and he shall lie with your wives in the sight of this sun.

12 For you did it secretly, but I will do this thing before all Israel and before the sun.'"

13 David said to Nathan,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And Nathan said to David, "The LORD also has put away your sin; you shall not die.

14 Nevertheless, because by this deed you have utterly scorned the LORD, the child who is born to you shall die."

15 Then Nathan went to his hous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죄인을 지목하는 우리의 손가락은 항상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판 받아야 할 죄인은 누구입니까? (5, 7절)
Our fingers pointing at sinners are always pointing at others, but who are the sinners who really need to be judged before God? (vv. 5, 7)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죄에 대해서도 다윗은 대가를 치려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죄의 대가가 주어졌습니까? (10-14절)

David had to pay the price for his sins even after repenting of his sins and receiving forgiveness. What penalty was given to David for his sin? (vv. 10-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

There Is No Perfect Crime

어떤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텍스트 메시지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어 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젯밤 한 일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어젯밤의 일을 당신 가족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설마 누가 돈을 보내겠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사람의 눈을 속이고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며, 회개하여 용서하신 다윗의 죄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들과 동침할 것이며,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를 죽고 죽였으며,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내쫓고 왕궁에 입성한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였으며, 다윗과 밋세바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은 죄의 대가가 어떻게든 갚아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Someone allegedly sent threatening messages via text message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 know what you did last night. If you don’t send the money to the account I’m specifying now, I’ll tell your family and everyone around you what happened last night.” I thought, “Who would send money in response to this threat?” but a lot of people actually sent money. No one is completely free from all sin. Even if you think that you have deceived the eyes of man and achieved a perfect crime, you cannot deceive the eyes of God.

God knew everything about David’s sins, disciplined him for his sins when he repented and forgave them. He said that the sword would never leave David’s house, that David’s wives would lie with others in a hundred weeks, and that David’s son would die because of his infidelity. Accordingly, David’s sons killed others and killed one another, and David’s third son, Absalom, rebelled to kill his father and usurp his kingship. Absalom, who had cast out his father and entered the king’s palace, slept with his father David’s concubines in broad daylight in front of others, and the child born of an affair between David and Bathsheba eventually died. It was God’s providence to make us realize what the penalty for our sins was so that we would never sin again.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본엘연합감리교회, 이미란(OH)
새생명연합감리교회, 전기상(OH)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20

2023 APR
목요일 • Thu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God Repays Us
according to
His Work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복형제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살인을 시작으로 다윗가의 종교 윤리적 범죄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단이 예언하였던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 징계가 이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13:30-39

사무엘하 13장

30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31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2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33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34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35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36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37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훔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38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삼 년이라

39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Reading Insight

Starting with Absalom's murder of his half-brother Amnon, the vicious cycle of David's religious and ethical crimes is beginning. God's inevitable discipline for David's transgression, which Nathan foretold, began to be fulfilled.

🎵 Pass Me Not, O Gentle Saviour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13:30-39	2 Samuel 13

30 While they were on the way, news came to David, "Absalom has struck down all the king's sons, and not one of them is left."

31 Then the king arose and tore his garments and lay on the earth. And all his servants who were standing by tore their garments.

32 But Jonadab the son of Shimeah, David's brother, said, "Let not my lord suppose that they have killed all the young men, the king's sons, for Amnon alone is dead. For by the command of Absalom this has been determined from the day he violated his sister Tamar.

33 Now therefore let not my lord the king so take it to heart as to suppose that all the king's sons are dead, for Amnon alone is dead."

34 But Absalom fled. And the young man who kept the watch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many people were coming from the road behind him by the side of the mountain.

35 And Jonadab said to the king, "Behold, the king's sons have come; as your servant said, so it has come about."

36 And as soon as he had finished speaking, behold, the king's sons came and lifted up their voice and wept. And the king also and all his servants wept very bitterly.

37 But Absalom fled and went to Talmai the son of Ammihud, king of Geshur. And David mourned for his son day after day.

38 So Absalom fled and went to Geshur, and was there three years.

39 And the spirit of the king longed to go out to Absalom, because he was comforted about Amnon, since he was dea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암논의 추행을 들은 다윗이 노하기만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압살롬의 살인을 알게 된 다윗이 통곡을 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1, 36절)
Why did David become angry when he heard of Amnon's molestation and did not follow up? What was the fundamental reason for David's wailing upon learning of Absalom's murder? (vv. 21, 36)

내가 범했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책망하고 질책할 수 있을까요?

How can I rebuke and reprimand someone who commits the same mistake I di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근상(OH)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석(OH)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는가?

How Conscious Are You of God?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과 판단을 두려워하고 의식하지만, 사람은 나를 24시간 쉬지 않고 살필 수 없고 더욱이 마음과 생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의도된 말과 행동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는 일에 능한 존재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화장빨과 조명빨, 그리고 수술빨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말합니다.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확인하자 수술빨.”

우리가 사람의 눈과 시선을 피할 수 있고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4에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된 말과 행동으로 사람으로부터 내 실제의 모습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까지 살피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파악하시며, 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 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가 정해 주신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We need to be afraid and tense before God. Although we are afraid and conscious of the gaze and judgment of others, man cannot continuously examine me 24/7, much less know my heart and mind. Human beings are good at wrapping and disguising themselves with their intended words and actions. There is a saying that you should not be fooled by women with makeup beauty, lighting beauty, and surgical beauty. So I say, “Let’s not be fooled by makeup beauty, let’s look again at lighting beauty, and let’s check a face for surgical beauty.”

We can avoid and deceive people. However, Psalm 121:4 says, “God does not rest or slumber, but watches over me,” making it clear that God knows all my heart and mind. We may be judged by others as being better than who we really are by our intended words and actions, but God searches our minds and hearts, grasps our essence through those thoughts and hearts, and evaluates us with these minds and hearts. Can a person who does not fear and be conscious of this God be a Christian? As God’s people, Christians must be conscious of God and fearful of God, willing to do according to God’s words and to live by the standards He has se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1

2023 APR
금요일 • Fri

뿌린 대로 거둡니다

Reap What You Sow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피하였던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없는 화해와 용서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비극을 수반하게 됩니다.

🎵 새522장(통269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14:25-33

사무엘하 14장

25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이었더라

27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8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9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30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발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발에 불을 질렀더니

31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32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33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Reading Insight

After killing Amnon, Absalom fled to Geshul. With Joab's intercession, Absalom was able to return home. However, when Absalom returned without true remorse and repentance, he repeated the circle of tragedy by committing treason.

🎵 Why Not Believe, My Brother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14:25-33

2 Samuel 14

25 Now in all Israel there was no one so much to be praised for his handsome appearance as Absalom. From the sole of his foot to the crown of his head there was no blemish in him.

26 And when he cut the hair of his head (for at the end of every year he used to cut it; when it was heavy on him, he cut it), he weighed the hair of his head, two hundred shekels by the king's weight.

27 There were born to Absalom three sons, and one daughter whose name was Tamar. She was a beautiful woman.

28 So Absalom lived two full years in Jerusalem, without coming into the king's presence.

29 Then Absalom sent for Joab, to send him to the king, but Joab would not come to him. And he sent a second time, but Joab would not come.

30 Then he said to his servants, "See, Joab's field is next to mine, and he has barley there; go and set it on fire." So Absalom's servants set the field on fire.

31 Then Joab arose and went to Absalom at his house and said to him, "Why have your servants set my field on fire?"

32 Absalom answered Joab, "Behold, I sent word to you, 'Come here, that I may send you to the king, to ask, 'Why have I come from Geshur? It would be better for me to be there still.'" Now therefore let me go into the presence of the king, and if there is guilt in me, let him put me to death."

33 Then Joab went to the king and told him, and he summoned Absalom. So he came to the king and bowed himself on his face to the ground before the king, and the king kissed Absalo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32절)

What evidence is there that Absalom didn't have true repentance? (v. 32)

부모의 정에 이끌린 다윗의 공명정대하지 못했던 용서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33절)

David's sympathy for his son without seeking justice caused tragedy. What was the result? (v. 3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캐논한인연합감리교회, 유보현(OH)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 장이준(OH)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이키의 적은 닌텐도

Nike's Enemy Is Nintendo

모든 사람과 조직에게는 라이벌, 혹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의 적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디다스나 푸마 같은 동종 스포츠 용품 업체를 떠올리겠지만, 나이키는 게임 업체인 '닌텐도'를 라이벌, 그리고 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나이키의 주 고객인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두하느라 야외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운동을 멀리했기에, 자연히 스포츠 용품의 구입에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젊은 청소년들이 야외에 나가 활동하고 운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경영 전략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이키가 세계 최고의 스포츠 용품 업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자신들의 진정한 라이벌과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불순종하도록 이끌며 죄를 행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면의 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정으로 압살롬의 죄를 용납함으로써 압살롬이 반역을 행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악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순간 모든 죄악의 대가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Everyone or every organization has a rival or an enemy. Who do you think is Nike's -the super power in the sporting goods in the world - enemy? Many might consider Adidas, New Balance or similar companies to be their rival. Interestingly, Nike considers Nintendo their rival or enemy.

It is because Nintendo took teenagers away from sports. Young people were the main clients for their products but young people are spending more time playing video games instead of playing sports. Nike needed different strategies to lure young people to go outdoors and play active sports. The reason Nike became the biggest sporting goods company was they had the ability to identify the market situation and accurately respond to the conundrum they faced.

To be faithful Christians, we have to accurately diagnose the thing that lures us into the life of sin and leads us to disobey God. We have to develop spiritual weapons to face that battle. David didn't recognize the internal enemy that prevented him from understanding the will of God. His love and sympathy for his son allowed Absalom to get away with his sin which later allowed Absalom to recommit treas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22

2023 APR
토요일 • Sat

회복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The Fruit of
Repentance
Is Restorat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하고 아버지의 후궁까지 취함으로써 나단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고통까지도 신앙적 각성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다윗의 숭고한 믿음은 그의 회복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 새379장(통429장) 내 갈길 멀고 밤은 깊는데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16:5-14

사무엘하 15-16장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9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10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13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4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Reading Insight

Nathan's prophecy was that Absalom would commit treason and take his father's concubines. It was fully realized. These painful consequences became the catalytic moments to bring spiritual repentance and renewal for David.

🎵 Lead, Kindly Light, Amid the Encircling Gloom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16:5-14

2 Samuel 15-16

5 When King David came to Bahurim, there came out a man of the family of the house of Saul, whose name was Shimei, the son of Gera, and as he came he cursed continually.

6 And he threw stones at David and at all the servants of King David, and all the people and all the mighty men were on his right hand and on his left.

7 And Shimei said as he cursed, "Get out, get out, you man of blood, you worthless man!

8 The LORD has avenged on you all the blood of the house of Saul, in whose place you have reigned, and the LORD has given the kingdom into the hand of your son Absalom. See, your evil is on you, for you are a man of blood."

9 Then Abishai the son of Zeruiah said to the king, "Why should this dead dog curse my lord the king? Let me go over and take off his head."

10 But the king said, "What have I to do with you, you sons of Zeruiah? If he is cursing because the LORD has said to him, 'Curse David,' who then shall say, 'Why have you done so?'"

11 And David said to Abishai and to all his servants, "Behold, my own son seeks my life; how much more now may this Benjaminite! Leave him alone, and let him curse, for the LORD has told him to.

12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look on the wrong done to me, and that the LORD will repay me with good for his cursing today."

13 So David and his men went on the road, while Shimei went along on the hillside opposite him and cursed as he went and threw stones at him and flung dust.

14 And the king, and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arrived weary at the Jordan. And there he refreshed himself.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다윗이 어떠한 시련과 환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5:24-25)

What is the fundamental reason why David was able to overcome all the challenges and tribulations? (15:24-25)

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불평 없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6:10-11)

Can you confess your sins honestly and sincerely and humbly accept the consequences of your sins without complaining? (16:10-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접합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마당연합감리교회, TBS(OH)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 우용철(OH)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분리와 회복

Separation and Restoration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출할 때 언약궤의 예루살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로부터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해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확고한 신앙적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확고한 의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인격적 회개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다윗은 회개에 의해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을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죄는 분리이며, 분리는 고통과 수치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회복이며, 회복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의 귀환,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성취입니다. 인간은 합리화와 자기 포장에 신박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운 일로 만들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흠이라도 반드시 찾아내는 일에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포장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회개가 달란트가 되어야 합니다.

David ordered that the Ark of the Covenant be returned to Jerusalem when he was fleeing from the city. The Ark, the symbol of God's holy presence, was separated from King David. Men's sin resulted in the separation from God. When it happened, David had to experience extreme humiliation, suffering and hardship. However, David showed his firm confidence that he can return to Jerusalem and to the Ark. When David acknowledged his sin and repented of his sins, he was able to return to Jerusalem. David was separated from God because of his sins, but his repentance brought him back to God's Ark and Jerusalem. God allowed David to come back.

Sin brings separation and separation accompanies suffering and humiliation. At the same time, repentance brings restoration and restoration brings return to God. This is the fulfillment of God's grace.

Human beings live with very convenient logic to justify their needs. When it comes to adultery, people will say, “If I do it, it is love and if others do it, it is adultery.” People have extraordinary skills of justifying their sins and making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3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참된 음료

백승린 목사 (베다니연합감리교회, NJ)

경상북도 봉화군 아연 광산에 매몰되었던 두 명의 광부가 221시간 만에 구조되었다는 반가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열흘 가까이 갇혀 있던 20년 베테랑 작업반장과 1년차 광부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구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탈출하는 노력보다 체력을 보존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겠지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매뉴얼대로 체온을 유지하고 물과 영양소를 확보하며 생존 의지를 가지고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나마 변갈아 사용하던 랜턴의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어 이제는 여망이 없다고 통곡하던 순간, 기적처럼 구조대의 불빛이 보였다고 하니 그 감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광부의 구조와 더불어 커피믹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믹스를 비상식량으로 마시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한 봉지의 열량이 약 50Kcal라고 하니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회용 커피믹스를 1976년에 한국 동서식품에서 처음 개발했습니다. 한국인의 상상력은 정말 기발합니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저도 절묘한 비율로 제조된 커피믹스의 유혹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찾지 않지만, 체력 소모가 많은 수련회나 장시간 회의 때는 커피믹스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커피믹스

를 아무리 정확한 비율로 만들었더라도, 물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면 제맛을 내기 어렵습니다. 반 컵이나 삼분의 일 컵 분량의 물에 타야만 커피믹스의 진한 맛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초소 위문을 갈 때 필수품이 초코파이와 달달한 커피였습니다. 군중병들이 다량의 커피를 준비하려면 커피와 설탕 그리고 프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숙련(?)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캔커피를 솥에 넣고 팔팔 끓여서 가지고 갔습니다. 보온 박스에서 꺼낸 뜨거운 캔커피를 대원들의 주머니에 넣어주면 캔이 식을 때까지 보온 효과가 뛰어나서 얼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일석이조의 인기 위문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조된 광부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6:55-58) 또한 주님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 6:31, 33)

커피믹스와 비교하긴 뭐하지만, 과연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를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절묘한 비율로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4

2023 APR
월요일 • Mon

택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God Protects
the Chose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압살롬의 추적으로 인한 위험의 순간 후세의 지혜로운 대처로 다윗이 반격을 위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지향점은 다윗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 새390장(통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17:5-14

사무엘하 17장

5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7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8 또 후새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꿈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엿드리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앎이니이다

11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

13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Reading Insight

Hushai advised against Absalom's men and David was able to retreat and reassess their situation. God's eyes were focused on David and God's protection and guidance kept David safe.

🎵 O Blessed Thought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17:5-14

2 Samuel 17

5 Then Absalom said, "Call Hushai the Archite also, and let us hear what he has to say."

6 And when Hushai came to Absalom, Absalom said to him, "Thus has Ahithophel spoken; shall we do as he says? If not, you speak."

7 Then Hushai said to Absalom, "This time the counsel that Ahithophel has given is not good."

8 Hushai said, "You know that your father and his men are mighty men, and that they are enraged, like a bear robbed of her cubs in the field. Besides, your father is expert in war; he will not spend the night with the people."

9 Behold, even now he has hidden himself in one of the pits or in some other place. And as soon as some of the people fall at the first attack, whoever hears it will say, 'There has been a slaughter among the people who follow Absalom.'

10 Then even the valiant man, whose heart is like the heart of a lion, will utterly melt with fear, for all Israel knows that your father is a mighty man, and that those who are with him are valiant men."

11 But my counsel is that all Israel be gathered to you, from Dan to Beersheba, as the sand by the sea for multitude, and that you go to battle in person."

12 So we shall come upon him in some place where he is to be found, and we shall light upon him as the dew falls on the ground, and of him and all the men with him not one will be left."

13 If he withdraws into a city, then all Israel will bring ropes to that city, and we shall drag it into the valley, until not even a pebble is to be found there."

14 And Absalom and all the men of Israel said, "The counsel of Hushai the Archite is better than the counsel of Ahithophel." For the LORD had ordained to defeat the good counsel of Ahithophel, so that the LORD might bring harm upon Absalo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밋세바의 조부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죽음에 집착했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절)

Why was Ahithophel, Bathsheba's grandfather, obsessed with David's death? (v. 3)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14절)

God's providence surpassed men's power and wisdom. How was His plan revealed during this time? (v. 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OK)
오콜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엄준노(OK)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내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

God Wiped Away My Tears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에도 많은 실수와 허물, 그리고 그로 인한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한순간의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픔을 겪으며 흘렸던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고 그 눈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왔습니까? 유학 오고 이민 와서 비자 문제로, 영주권 문제로 고통을 겪으며 눈물 흘려보았을 것입니다. 학비가 없고 다음 달 렌트비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서 괴로워하며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당장 다음 끼니 거리가 없고, 먹고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려 해도 어디 한 곳 일할 곳도 없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 앞에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민 왔나'하며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도 돈이 없고 보험이 없어서 병원도 가지 못하며 집안에 그냥 드러누워 있을 때, '내가 왜 이민 와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하며 통곡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내 앞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놓으신 영광된 미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Believers are not exempt from mistakes, failures, challenges or tribulations. For the ones who fully trust the Lord and repent of their sins, these are only the path that life passes through.

God is our Father who wipes away our tears of pain. We have shed so many tears and we have seen tears from our people as we experience the life of immigrants. The complication of obtaining visas, going through the process to get legal residency, and not being able to pay the college tuition, rent or food afflicted us. It pained us terribly when we were sick but couldn't go to the doctor because we couldn't afford to pay. We wailed, lamenting, "Why did I come to this foreign country and suffer like this?"

Some of you can testify that all of that has passed and are now memories of the past. Some of you, however, are still experiencing it. I encourage you to remember that even in the most difficult troubles and challenges our God has prepared the victorious future for you and you can have hope in it. God wipes our tears of pain and sorrow away and He will turn the tears of sorrow into joy and thanksgiv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25

2023 APR
화요일 • Tue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자

A Man Who Is Not
Honorable
before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다윗 왕국의 가장 큰 비극적 시련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모두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혹은 도전이라는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18:9-18

사무엘하 18장

9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0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11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14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16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17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18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 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Reading Insight

Abaslom's treason was a disastrous tragedy that failed and also marred David's kingdom. Both David and Absalom were sinners before God, but their endings were completely different based on their choice of repentance or rebellion.

🎵 We Shall Be Like Him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18:9-18

2 Samuel 18

9 And Absalom happened to meet the servants of David. Absalom was riding on his mule, and the mule went under the thick branches of a great oak, and his head caught fast in the oak, and he was suspended between heaven and earth, while the mule that was under him went on.

10 And a certain man saw it and told Joab, "Behold, I saw Absalom hanging in an oak."

11 Joab said to the man who told him, "What, you saw him! Why then did you not strike him there to the ground? I would have been glad to give you ten pieces of silver and a belt."

12 But the man said to Joab, "Even if I felt in my hand the weight of a thousand pieces of silver, I would not reach out my hand against the king's son, for in our hearing the king commanded you and Abishai and Ittai, 'For my sake protect the young man Absalom.'"

13 On the other hand, if I had dealt treacherously against his life (and there is nothing hidden from the king), then you yourself would have stood aloof."

14 Joab said, "I will not waste time like this with you." And he took three javelins in his hand and thrust them into the heart of Absalom while he was still alive in the oak.

15 And ten young men, Joab's armor-bearers, surrounded Absalom and struck him and killed him.

16 Then Joab blew the trumpet, and the troops came back from pursuing Israel, for Joab restrained them.

17 And they took Absalom and threw him into a great pit in the forest and raised over him a very great heap of stones. And all Israel fled every one to his own home.

18 Now Absalom in his lifetime had taken and set up for himself the pillar that is in the King's Valley, for he said, "I have no son to keep my name in remembrance." He called the pillar after his own name, and it is called Absalom's monument to this da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길고 아름다운 머리로 인해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9, 14절)

Absalom's signature long and voluptuous hair led him to death. What lesson do we learn from this? (vv. 9, 14)

살인과 관계된 범죄에 다윗과 압살롬이 모두 연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Both David and Absalom were involved in murder. However, why did they experience different consequence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텔사한인연합감리교회, 손태원(OK)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 김관영(OK)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Who Do I Look Like?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갑니다. 오래전에 어느 청년이 “목사님, 연예인 닮았어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껏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만면에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그래, 연예인 누구?” 물었는데, 들려오는 대답은 저를 슬픔과 좌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태진아요!” 나를 태진아 닮았다고 하는 청년보다 더 알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다가 “맞다, 태진아” 하며 박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의 인격이나 업적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닮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본받기를 원했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함께 하였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었지만 죄에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 양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으며 압살롬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자 했던 다윗과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외면했던 압살롬은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에서 과연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People who are in love start to resemble each other. A long time ago, a young man said to me, “Pastor, you look like a celebrity!” It made me happy and with a big and kind smile on my face, I asked “Oh yeah? Who?” “Tae JinAh!” His answer made me sad and I wasn’t happy with that answer. As if that wasn’t enough, another young man right next to him enthusiastically agreed by clapping his hands with a laugh, “That’s right, Tae JinAh.” Oh, now I liked that kid less.

We want to resemble respected and successful people. Who do you look like? It is said that if a person spends enough time with the person he/she honors and respects, the follower will look more like that honorable person.

Consequently, if I love God and Jesus with all my heart and if I serve our God as my Lord faithfully and want to be more like Jesus, I should bear a resemblance of God and I should have the fragrance of Jesus. David and Absalom were both sinners but their attitudes towards sins were completely different. David wholeheartedly repented but Absalom completely rebelled against God’s will. And the end of their journey was the complete opposite.

Are you emulating Jesus so that your character and actions show Jesus clearl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6

2023 APR
수요일 • Wed

선택된 자의 최우선적 과제

The First Priority
of the Chose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사사로운 감정은 반란을 극복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민족적 공감대를 균열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삶의 최우선적 과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새552장(통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묵상본문

사무엘하 19:1-8a

통독본문

사무엘하 19장

- 1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 2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 3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 4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 5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 6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 7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 8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Reading Insight

David was saddened over the death of Absalom. His response could bring division among the community of Israelites who overcame the rebellions. The first priority of a leader is to actualize God's justice.

🎵 When the Morning Breaks Anew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19:1-8a

2 Samuel 19

1 It was told Joab, “Behold, the king is weeping and mourning for Absalom.”

2 So the victory that day was turned into mourning for all the people, for the people heard that day, “The king is grieving for his son.”

3 And the people stole into the city that day as people steal in who are ashamed when they flee in battle.

4 The king covered his face, and the king cried with a loud voice, “O my son Absalom, O Absalom, my son, my son!”

5 Then Joab came into the house to the king and said, “You have today covered with shame the faces of all your servants, who have this day saved your life and the lives of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and the lives of your wives and your concubines,

6 because you love those who hate you and hate those who love you. For you have made it clear today that commanders and servants are nothing to you, for today I know that if Absalom were alive and all of us were dead today, then you would be pleased.

7 Now therefore arise, go out and speak kindly to your servants, for I swear by the LORD, if you do not go, not a man will stay with you this night, and this will be worse for you than all the evil that has come upon you from your youth until now.”

8 Then the king arose and took his seat in the gate. And the people were all told, “Behold, the king is sitting in the gate.” And all the people came before the k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2-3절)

What kind of impact do the misjudgments and wrongdoing of God's chosen have upon the community? (vv. 2-3)

다윗은 반역에 동조한 자들조차도 용납하고 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David embraced people who even rebelled against him. Can you put aside your personal feelings and intention for the glory of Go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오광석(OR)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신(P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정체성

Identity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 사람을 실은 작은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기관 이상으로 침몰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승객들에게 “지금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는데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승객들 중에서 세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어 희생을 해야 다른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미국인이 벌떡 일어나 “God bless America!”를 외치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뒤를 이어 패전국 독일 사람이 일어나서 “하일 히틀러”를 외친 후 바다에 뛰어듭니다. 묘하게 분위기가 애국심 경쟁으로 흐르게 되었는데, 애국심 하면 절대 뒤질 수 없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나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외친 후 옆에 앉아 있던 일본 사람을 발로 차서 바다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사람은 성별, 가문, 국적, 직업, 신분과 지위에 의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After World War II, a small ferry carrying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faced a crisis of engine failure while sailing the Atlantic Ocean. The captain ran to the passenger cabin and shouted that they needed to lessen the weight of the ferry in order to save everyone else. Unfortunately, three volunteers had to sacrifice their lives to decrease the weight of the ferry. The first volunteer was an American who threw himself into the sea shouting, “God Bless America.” The second was a German shouting, “Heil Hitler.” The third one was a Korean who shouted, “Long live, Korea” three times and kicked a Japanese man into the sea.

Everyone has their own identity related to their gender, family origin, nationality, career, job title and social status. What is the first and foremost identity we as Christian will claim? It is “people of God” who belong to God. The people of God whom God has chosen would not follow criteria of this world. The chosen one of God would discern God’s will and follow God’s command whatever it might be. Do you live the life of a chosen one who follows Christ’s cal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7

2023 APR
목요일 • Thu

패역한 백성

Disobedient Peopl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던 유다와 북이스라엘 10 지파의 갈등이 세바의 반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기적 패역성은 훗날 남북 왕국 분열의 비극적 결과를 야기합니다.

🎵 새259장(통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독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20:1-3, 14-22

사무엘하 20-21장

1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 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3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간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14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15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 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6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러 하노라 한다 하라

17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 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18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19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데도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와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20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1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 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던지리 이다 하고

22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Reading Insight

Judah and the 10 tribes of Northern Israel had conflicts over the dominant power of David's return to Jerusalem caused by the rebel Sheba. The selfish disobedience of the Israelites brought the tragic consequence of a split between Judah and Israel.

🎵 Have You Been to Jesus for the Cleansing Pow'r?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20:1-3, 14-22

2 Samuel 20-21

1 Now there happened to be there a worthless man, whose name was Sheba, the son of Bichri, a Benjaminite. And he blew the trumpet and said, "We have no portion in David, and we have no inheritance in the son of Jesse; every man to his tents, O Israel!"

2 So all the men of Israel withdrew from David and followed Sheba the son of Bichri. But the men of Judah followed their king steadfastly from the Jordan to Jerusalem.

3 And David came to his house at Jerusalem. And the king took the ten concubines whom he had left to care for the house and put them in a house under guard and provided for them, but did not go in to them. So they were shut up until the day of their death, living as if in widowhood.

14 And Sheba passed through all the tribes of Israel to Abel of Beth-maacah, and all the Bichrites assembled and followed him in.

15 And all the men who were with Joab came and besieged him in Abel of Beth-maacah. They cast up a mound against the city, and it stood against the rampart, and they were battering the wall to throw it down.

16 Then a wise woman called from the city, "Listen! Listen! Tell Joab, 'Come here, that I may speak to you.'"

17 And he came near her, and the woman said, "Are you Joab?" He answered, "I am." Then she said to him, "Listen to the words of your servant." And he answered, "I am listening."

18 Then she said, "They used to say in former times, 'Let them but ask counsel at Abel,' and so they settled a matter.

19 I am one of those who are peaceable and faithful in Israel. You seek to destroy a city that is a mother in Israel. Why will you swallow up the heritage of the LORD?"

20 Joab answered, "Far be it from me, far be it, that I should swallow up or destroy!

21 That is not true. But a man o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called Sheba the son of Bichri, has lifted up his hand against King David. Give up him alone, and I will withdraw from the city." And the woman said to Joab, "Behold, his head shall be thrown to you over the wall."

22 Then the woman went to all the people in her wisdom. And they cut off the head of Sheba the son of Bichri and threw it out to Joab. So he blew the trumpet, and they dispersed from the city, every man to his home. And Joab returned to Jerusalem to the k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했던 것을 용서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행동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1-2절)

What is the implication of the actions of the Israelite tribes who were forgiven for their aid for Absalom's rebel? (vv. 1-2)

내게 있어 하나님은 전적인 감사와 순종의 대상입니까? 이해관계에 의해 감사와 불평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Is God for you a Mighty One who receives your complete gratitude and obedience? Or do you repeat conditional gratitude and complaint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 김종혁(PA)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차명훈(P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개 같은 목사, 개 같은 성도

Dog-Like Pastor, Dog-Like Congregants

고양이는 열 번 잘해주다 한 번 잘못해주면 잘못해 준 것만 기억하고 눈치를 보며 주인을 적대시하지만, 개는 열 번 잘못해 주다가 한 번 잘해 주면 잘해 준 것만 기억하고 주인에게 전적으로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 같은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다른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개 같은 목사가 될 것이며, 성도들도 개 같은 성도들이 되어 목사와의 관계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좋은 것과 잘해 준 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며 서로 섬겨주어, 목사와 성도 모두가 개같이 되는, '개판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개는 자신에게 한 번 잘해 준 주인이 또 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인에게 바칩니다.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계속 충성하면 다른 은혜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충성은 온전한 충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계속하여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자, 우리 성도들은 '개 같은 성도'가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개판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A cat can be hostile to you if you were kind to it 10 times but unkind only once. Dogs are different. A dog is super loyal to its owner even though you were only kind to it once but unkind 10 times. I would like to be a dog-like pastor. In my relationships with other clergy, with my congregants and with my family, I can remain faithful and loyal to them no matter what. Also my congregants can be dog-lik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stor, among themselves and in other relationships. If the church becomes dog-like, we will only remember the times when we were treated well with kindness by others and this will be a great model of heaven with which God would be pleased.

Dogs never expect additional kindness from their owners when it stays loyal to the owner. Only one case of kindness from the owner is sufficient for a dog to remain loyal. What is complete obedience and loyalty to our God? It should be an expression of loyalty to God for the amazing saving grace not from the calculated expectation of receiving another favor. The one and only saving grace can be the sole reason for our complete obedience and loyalty to God. When I promised my congregation that I would be a "dog-like pastor," they also responded that they would be "dog-like congregants." This is how our church becomes a "dog-like church" togethe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8

2023 APR
금요일 • Fri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God,
Who Is My Migh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류하는 자의 구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 새 384장(통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복)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22:1-7

사무엘하 22장

- 1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 2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 3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 4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 5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 6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 7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Reading Insight

Here we can find the presence of God who paid attention to the cry of him who seeks salvation from God through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God is the source of the might, the power and the wisdom of a righteous person who can conquer this world.

🎵 To the Hills I Lift Mine Eyes

(복)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22:1-7

2 Samuel 22

1 And David spoke to the LORD the words of this song on the day when the LORD delivered him from the hand of all his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Saul.

2 He said,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3 my God,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and my refuge, my savior; you save me from violence.

4 I call upon the LORD, who is worthy to be praised, and I am saved from my enemies.

5 “For the waves of death encompassed me, the torrents of destruction assailed me;

6 the cords of Sheol entangled me; the snares of death confronted me.

7 “In my distress I called upon the LORD; to my God I called. From his temple he heard my voice, and my cry came to his ear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2-3절)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Who was God to David (vv. 2-3)? To what kind of God do you proclaim and confess?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행하여 주시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21-28절)

What would the life of a person look like whose source of might and power is only God?

(vv. 21-2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덕(PA)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 박성순(P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의 ‘뺨’은 누구인가?

Who Has Been by My Side?

주변에 홈리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인타운에서 홈리스 한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가끔 볼 수 있지만, 약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홈리스를 만났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도 처음 미국에 이민 올 때는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왔을 텐데, 자녀 때문에 이민 온 분이려면 어쩌면 자식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사, 변호사로 키웠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버림받아 홈리스가 되었겠구나’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 미국 올 때 자신들이 미국에 와서 홈리스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겠지요. 누구든 자신의 미래를 홈리스로 상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루 뒤에 내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 하루는커녕 한 시간, 10분 후에 내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내 의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 뺨 밖에 없으니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뺨만 있으면 다른 뺨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한 시간, 10분 후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되는 영원한 인생입니다.

We have had more homeless people recently. We can often spot elderly homeless Korean men and women in Koreatown nowadays. About 20 years ago, when I saw an elderly homeless Korean woman who was begging, I was completely shocked. My heart was broken to imagine that she also came to the U.S. with a dream to raise her children well to become a doctor or a lawyer, but now she was deserted and homeless. She would have never imagined that she would have become homeless when she first came to the U.S. Nobody expects to become homeless. We never know what will happen to us tomorrow. In fact, it is not even just tomorrow we do not know, but we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to us in the next hour or even 10 minutes. Therefore, we cannot be confident that we live in this world only with our own might and power.

Who has your back? If only God has your back, you do not have to be anxious about anything, since you do not need anyone else to watch your back. Humans have no guaranteed future, not even for one hour or even for 10 minutes. We only live for that given moment. If God has our backs, our lives are guaranteed with the promise of eternal lif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9

2023 APR
토요일 • Sat

내 인생의 주권

The Ownership
of My Lif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죄인 된 인간을 의인으로 이끌어 가는 본질입니다.

🎵 새302장(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하 23:1-7

사무엘하 23-24장

1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
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2 여호와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
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
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5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
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
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
니하시랴

6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
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Reading Insight

David proclaimed the righteous providence of God who accomplished His faithfulness even in the midst of David's sinfulness. The essence of God's salvation plan is to transform sinful humanity into the righteous when humans completely obey God's sovereignty.

🎵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

Meditation

Reading Plan

2 Samuel 23:1-7

2 Samuel 23-24

1 Now these are the last words of David: The oracle of David, the son of Jesse, the oracle of the man who was raised on high, the anointed of the God of Jacob, the sweet psalmist of Israel:

2 "The Spirit of the LORD speaks by me; his word is on my tongue.

3 The God of Israel has spoken; the Rock of Israel has said to me: When one rules justly over men, ruling in the fear of God,

4 he dawns on them like the morning light, like the sun shining forth on a cloudless morning, like rain that makes grass to sprout from the earth

5 "For does not my house stand so with God? For he has made with me an everlasting covenant, ordered in all things and secure. For will he not cause to prosper all my help and my desire?

6 But worthless men are all like thorns that are thrown away, for they cannot be taken with the hand;

7 but the man who touches them arms himself with iron and the shaft of a spear, and they are utterly consumed with fir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2절)

Who had the sovereign ownership of David's life? (23:2)

내 언행, 내 삶의 모습, 내 가치관과 신념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Is it myself or God who is the owner of my life and whose ownership is revealed in my words, deeds and life perspective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필라델교회, 조병우(PA)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선우혁(R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그리스도인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공사의 과정을 거치며 완성되어 갑니다. 성숙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성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숙은 과정입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 의지, 주장, 판단, 욕심을 다 비워버리고 빈방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대로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여기저기에 딱지를 딱 붙여 놓고 “내 생각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가치관은 관여하지 마세요. 자식 문제는 왈가왈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천명하는 것입니다. 집을 공사해서 완전히 새로 짓고자 한다면 공사 담당자에게 집을 완전히 비워 주어야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중에 이런저런 문제와 분쟁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을 보면, 참 흉물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사하기 위해 여기저기 고치려고 하실 때, 내가 개입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남아버린 건물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 의해 공사되고 있습니까?

Christians become mature through the construction process of growth and maturity. The point here is not the final completed product, but the process of ongoing maturity. The process matters in maturity since it does not happen overnight. Spiritual maturity means to give the sovereignty of life to God, so God can work in my life. In order for God to work in my life, I have to empty myself completely. When I empty my will, my thoughts, my opinions, my judgments and my greed, God can work in my life with His own will and provision in this empty space. If we want to have God proclaim His sovereignty in our life, the total submission of our life is a prerequisite. If I put a post-it here and there in my life telling God, “Not here! Don’t touch my thoughts, do not mess up my life perspectives, do not make comments on how to raise my children etc.” it means that I proclaim to God that I am the owner of my life. If you want to fix your house, you have to give your house to a handyman to take care of it. It certainly is ugly to see buildings that stopped construction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due to disputes and disagreements between the construction managers and the owners. When God wants to fix our problems and issues, let us not meddle and argue about what can be and what cannot be. If we try to keep ownership of our lives, the construction will stop and we will remain as deserted and ugly buildings. Do you want your spiritual identity to become a deserted building? Is your life under construction by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30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언약에 대한 묵상

최현 목사 (올네이션스연합감리교회, KY)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편에 달린 부제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다윗은 장인인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고비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1절, 2절,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당신)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여인의 ‘자궁’에서 나온 말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느끼는 애정, 뜨거운 사랑,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을 말합니다. 더욱 재미나는 사실은 구약 다른 곳에서 이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느끼는 애착과 애정으로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직 여기서만 주어가 인간인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2)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나의 피할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여덟 가지를 고백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여덟 가지에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말하고 고백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3) “찬송 받으실 여호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46절에서는 “여호와와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라고 말하고, 49절에서는 “여호와여 이르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 하리리다”라고 다짐합니다. 다윗은 늘 거문고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함께 거하게 합니다. 또한 찬양은 하늘을 맛보게 하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비대한 무기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엮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4-5절)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6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 해주신 후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기 전에 선포한 말입니다.

다윗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나...”(31절) 그리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싸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37-38절) 그랬더니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끌어버리게 하셨나이다.”(39-40절)라고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소그룹 교재

2023
04

-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던 그 입으로



새141장(통132장) 호산나 호산나
새135장(통133장) 어제께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주

여는 질문

내 입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기도의 도구인지, 아니면 거짓과 불평, 불만의 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 이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복자가 입성할 때 타는 말이 아닌 사람들의 짐을 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인간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지고 고난을 겪으시다가 결국 죽임을 당할 고난의 종이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맛있게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의 앞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을 영접하는 관례적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였던 그날로부터 불과 5일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으로 맞으며 왕으로 영접하였던 자들, 그리고 5일 후, 금요일에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자들,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호산나로 환영하던 그 입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죄 없이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담대히 외치며 십자가의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결국, 나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무리 중의 하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깨어지자 그 예수님을 당장에 저주하고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과, 입만 열면 예수님 찾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그 무리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나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입을 찬양과 기도의 도구로,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아, 내 삶과 언행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회개의 삶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내 언행과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언행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9절, 27:22-23)
- 예수님을 저주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삶 속으로

-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 모습과 죄악된 언행을 행하는 내 모습 중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지 고백해 봅시다.
-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암송 구절 | 마태복음 2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녀와 나눔

내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과 죄악의 말이 같이 나온 적이 있나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새149장(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새215장(통354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새10장(통34장) 전능왕 오셔서

여는 질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본문 이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 것은 스스로 유대교의 배교자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특권과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부인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간 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였다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죄를 합리화하는 강박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을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기도회 등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최선을 다해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힘씁니다. 그러나 교회의 그런 역동성이 교회 밖 현실에 대한 참여와 지혜로운 분별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각종 봉사를 통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성찰하여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면 한국교회는 사회 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이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와 뒷담화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 거야

니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선구자였던 교회가 어 느덧 이 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가정의 걸림돌, 직장의 걸림 돌, 이웃의 걸림돌,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나와 함께 있으면 나로 인해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 있다가는 나 때문에 나와 같이 지옥에 가도록 만 드는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야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 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버렸듯이,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위해 예수 님께서 그 험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시고 죽으셨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신앙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 내가 있는 곳에 하나 님 나라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57절)
- 유대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 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62-64절)

삶 속으로

- 다른 사람을 위해, 아니면 교회를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 나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걸림돌입니까?

암송 구절 | 마태복음 27: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녀와 나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새354장(통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새358장(통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새549장(통431) 내 주여 뜻대로

여는 질문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을 위해 다윗은 거국적이고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적군의 수장이었던 아브넬을 포용하는 위대한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여기실까요?

본문 이해

다윗은 이스라엘이 혼란과 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국가와 민족으로 변영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권세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업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서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기 삶의 본질로 여겼습니다. 다윗을 이끌고 가는 것은 인간적 욕심과 야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는 원수를 향한 자신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철저히 절제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했던 다윗과는 달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신앙적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서 '시간'을 조정하고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관계된 시간을 줄입니다. 교회에 두 번 가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번 가던 것을 아예 가지 않으며, 교회에서 봉사하던 것을 다 내려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학'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도입해 버립니다. 또한 돈을 줄여야 할 상황이 되면 헌금과 같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관련된 돈과 비용을 제일 먼저 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관념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줄여야 할 때, 제일 먼저 신앙에 관련된 것을 포기하고 줄이는 것일까요? 초대 교회 시절에, 그리고 한국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며 생명을 포

기하는 한이 있어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신앙의 세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즉 선민으로 선택받았으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난 후,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 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람으로 선택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성숙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였던 사울 가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화합과 포용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14절)
-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8:11-12)

삶 속으로

-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 감정과 의지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의지를 끝까지 고집하며 행한 적이 있습니까?

암송 구절 | 사무엘하 3:18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녀와 나눔

-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나요?
- 내가 기쁘고 좋은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중 어떤 일을 먼저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521장(통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524장(통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는 질문

계속되는 승리와 번영으로 인한 다윗의 교만이 밋세바와의 범죄를 유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이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력은 강해지고 국토는 넓어졌으며 재물은 넘치도록 쌓여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다윗은 이러한 번영과 성공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이와 같은 교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해도 다 용납된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와 간음을 행하였고,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도 사람의 눈만 속이려 하면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절정기는 일단락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오’(Coram Deo), 라틴어로 ‘Coram’은 ‘앞에’라는 뜻이고, ‘Deo’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코람데오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칼빈과 같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생의 좌우명이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믿음과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는 당연히 ‘코람데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보다는 ‘사람 앞에서’(Coram Hominibus)사는 세속적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줄 서서 손 비비는 세상 풍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목사는 어떻게든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고 교단에서 한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힘과 권위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평신도들도 어떻게든 장로가 되려고 하고 중요한 임원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를 쓰고, 원하는 직분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남아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인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

든 목사에게라도 잘 보이고 충성해서 원하는 직분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앞에 서거나 제단 위에 서면 조금 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신발을 신지 못하고 벗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십자가도 한낱 나뭇조각일 뿐이며 제단도 교회 건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교회 밖을 나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Coram Deo)'가 아닌 '사람 앞에서(Coram Hominibus)' 살아가며 온갖 부끄러운 죄를 다 짓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십자가 앞에서, 제단 위에서 거룩하게 행동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제단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인간 숭배와 교회라는 건물과 관념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인간은 점점 더 높아지는 인간 숭배와 우상 숭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으나, 옳지 않으나',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오직 이것만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 신정 왕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 다윗의 타락과 범죄는 무엇으로 인해 야기되었습니까? (1절)
- 범죄의 어떠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8, 13, 15절)

삶 속으로

-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마음 자세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암송 구절 | 사무엘하 11:11

우리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아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녀와 나눔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알고 지켜 보신다는 것을 믿나요?

내 인생의 주권



새90장(통98)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302장(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는 질문

내 인생과 하루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내 생각과 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었습니까?

본문 이해

다윗은 통치 말기에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역시 죄인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죄인 된 인간을 의인으로 이끌어 가는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공사의 과정을 거치며 완성되어 갑니다. 성숙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성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숙은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 의지, 주장, 판단, 욕심을 다 비워버리고 빈방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대로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여기저기에 딱지를 딱 붙여 놓고 “내 생각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가치관은 관여하지 마세요, 자식 문제는 왈가왈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천명하는 것입니다. 집을 공사해서 완전히 새로 짓고자 한다면 공사 담당자에게 집을 완전히 비워주어야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중에 이런저런 문제와 분쟁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을 보면, 참 흉물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사하기 위해 여기저기 고치려고 하실 때 내가 개입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남겨진 건물

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칭의에서 성화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화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죄 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칭의함을 받은 우리의 실제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변화시켜서 천국에 이르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 천국의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개조시키는 공사의 과정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사에 내 의지와 생각이 반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자가 지금 즉시 해야 할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23:2)
-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질 가시나무는 누구를, 어떤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6-7절)

삶 속으로

-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은, 내 삶의 본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 내 언행, 내 삶의 모습, 내 가치관과 신념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암송 구절 | 사무엘하 23:2

여호와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녀와 나눔

-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By the Mouth Having Blessed Jesus



Hosanna, Loud Hosanna
Oh, How Sweet the Glorious Message
Because He Lives



Opening Discussion

Let's think about whether my mouth is either an instrument of praise, gratitude and prayer toward God and Jesus or one of falsehood, complaint and dissatisfaction.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esus' suffering began on Palm Sunday when He entered Jerusalem. Believing Jesus to be the Messiah they had been waiting for, the Jews welcomed Jesus into Jerusalem by waving palm branches and shouting "Hosanna." But by not entering on a horse as a conqueror would enter, but on a colt carrying the burdens of men, Jesus showed that He would be a suffering servant who would take the yoke of human sin upon himself, suffer and eventually be killed. The Jews greeted Jesus as He entered Jerusalem by singing "Hosanna," waving palm branches and took off their clothes and laid them in front of Him. This was the customary act of receiving the king.

What happened just five days after the Jews accepted Jesus as their King? Were they different people: one group who received Jesus as king when He entered Jerusalem with the praise of "Hosanna," and another group who beat and mocked Jesus five days later on Friday shouting, "Crucify Jesus and kill Him?" No. They were the same people. The Jews in Jerusalem spit in Jesus' face and cried out for Him to be crucified with the same mouths having welcomed him with praises of Hosanna. They slapped and crucified Jesus with the same hands that had received Him like a king.

We confess ourselves to be sinners who crucified Jesus. I need to know exactly what it means to be the sinner who crucified Jesus. Think about the time of the crucifixion of Jesus. What kind of person would I have been if I had been there? Can you think of yourselves standing beside Him on the cross, boldly proclaiming that Jesus is the Christ and that He

dies without sin and for our sins alone? I would have been one of the crowd calling for Jesus to be kille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s who cursed and killed Jesus as one and I who immediately pour out complaints and blame when my desire is not fulfilled even as I seek Jesus. If I had been present at the crucifixion of Jesus, I would have acted the same as the crowd. Therefore, I am the sinner who crucified Jesus.

I cannot be a saved Christian without repentance for my sins that led to the crucifixion of Jesus. Making my mouth an instrument of praise and prayer and my body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ere the Holy Spirit dwells, revealing the fragrance of the living Jesus in me through my life, words, and deeds should be the life of repentance of the sinner who crucified Jesus. Repentance is an action, not a word. If I was a sinner who crucified Jesus before I was born again, then I, who received Jesus and was born again, should be the fragrance of Christ, testifying to what kind of person Jesus is through my words, deeds and life.



Into the Word

- How did the Jews' words and actions toward Jesus change? (vv. 8–9, 27:22–23)
- Does the image of the Jews cursing Jesus show what they expected of Him?



Into our life

- Let me confess which is truly me: do I give thanks and praise to Jesus or do I produce sinful words and deeds.
- How would I have acted if I had been present at Jesus' crucifixion?



Memory Verse | Matthew 21:9

And the crowds that went before him and that followed him were shout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ve words of praise and prayer for Jesus ever come out of my mouth together with words of sin?

A Roadblock or a Stepping Stone?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All for Jesus
Come, Thou Almighty King

Opening Discussion

Joseph of Arimathea was a member of the Sanhedrin. He risked his life and reputation to pay honor to Jesus by burying Jesus in his tomb. What can you risk for Jesus Christ who died for your sins?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oseph of Arimathea, a member of the Sanhedrin which was the supreme council of the Jews, took Jesus' body and placed it in his tomb. This act could have been considered as opposing the view of the Sanhedrin. He took the risk of being stripped of all his privileges and rights and being branded as a traitor, but he was willing to pay the utmost respect to the body of Jesus. On the other hand, the priests and Pharisees posted guards at the tomb to prevent Jesus' disciples from stealing the body of Jesus. They were afraid that the disciples would claim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Joseph of Arimathea was the one who prepared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the priests and Pharisees were the ones who stood in the way of the glory of His resurrection.

Jesus died and was buried in the tomb paying for our hardened and stubborn sinful hearts that resisted the grace of God. The first thing we should do in front of the crucified body of Jesus and his tomb is not to justify our sins, but to acknowledge our sins and repent. Korean churches exert great effort to meet and gather as often as they can: Sunday services, Wednesday services, morning prayer meetings, and the list goes on. Our churches also study the Word of God diligently and serve in different areas of church ministry.

But our churches are having a hard time connecting with people outside of the church. We need creativity and discernment. If our churches can contribute to our community by knowing the patterns of the world and connecting with them, we can become the stepping stone and not the roadblock. We, the church, have been the mockery of the community

as a roadblock. People are laughing at us. We are considered a backward movement. Our church used to voice our concern about the world but now, ironically, the world is concerned about our churches.

The Korean community raises their voices saying, "How can the church do that? How can Christians do that?" Are we no longer the vanguards but the laughing stock of the world?

Let's think about how I and my church are doing right now. Unknowingly, we may become the roadblock to Christ at my work, home, church and with my neighbors. Am I able to lead others to Christ and God's heaven? Or because of me are others refusing to accept Christ and entrance to the Kingdom of God?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prevented the people from coming to Christ instead of leading them to the Messiah. We the church and Christians may have done the same by being the stumbling block to Jesus Christ. As Christians, we need to see how our faith and life are influencing others. Christ sacrificed his life for us and we should be the true and living sacrifice to build the Kingdom of God. Our church has to be the strong and unfailing stepping stone for Christ. When the church comes together guarded by the Word of God and lives out in faith and prayers, this will become possible.



Into the Word

- What status did Joseph of Arimathea consider most important? (v. 57)
- The Jewish leaders prevented people from going to Jesus and they were the roadblock to Jesus. What should Christ's followers be in this world? (vv. 62-64)



Into our life

- Have you ever sacrificed your own interest and given up your own good for the sake of others or your church?
- Am I a stepping stone to lead people to Christ or a roadblock that causes people to stumble?



Memory Verse | Matthew 27:57

When it was evening, there came a rich man from Arimathea, named Joseph, who also was a disciple of Jesus.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can you do for Jesus as a disciple of Christ?

An Honorable Person before God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There's a Royal Banner
My Jesus, as Thou Wilt

Opening Discussion

For the purpose of unifying the kingdom of Israel and envisioning the grand future of Israel, David accepted Abner who was the commander for King Saul, David's enemy. What kind of person would God consider using for His purpos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David hoped that Israel would end the time of conflict and strife to start as a prosperous nation that reveals the glory of God. David was recognized 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and was able to accomplish great things with power and authority. His faith never wavered and his faith was attributed to his great achievements. He did not desire to be a great man for the people, but he became a great man for God. David didn't consider accomplishing his achievements as the king of Israel, but as a man of God. He always regarded God's will and providence as the essence of his life rather than his own will, thoughts, judgment, and assertions. It was only God's good will that led David, not human greed or ambition. When he honored God's will and providence, he was able to restrain his feelings and will even toward his enemies. David did everything according to God's will, not his own.

Unlike David, who gave himself first for the glory of God, today's Christians often give up their faith easily when confronted with heavy burdens of the world. If any difficulties or problems arise and if something needs to be adjusted or eliminated, church is compromised first. Instead of going to church twice, it will be once, or serving or going to church will stop. People start "vacationing" from church. Also, when money is tight, the first thing people do is stop giving to the church. We need to think about what faith means to us.

Why do Christians first give up and reduce things related to church when their finances are tight? In the days of the early church 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Christians risked their lives to keep their faith and did not give up their faith even if their lives were jeopard-

dized. For this generation, how many people will stand on God's side to the end of the time? We need people who can honor God and with whom God is pleased. Israel was a nation that was chosen by God. But after the days of David and Solomon, their rebellion and disobedience dishonored God and consequently they received God's judgment. When Israel was unable to fulfill God's mission, God chose Christians as the new spiritual Israel to replace them. I am now a chosen person by God. Do I grow with maturity and do I live as an honorable person before God? Those who only pay attention to the eyes of the world and listen only to what people say cannot become the chosen people before God. God chooses those who are conscious of the eyes of God and listen to the words of Jesus as His people. We must become the "chosen people" who will value and uphold God's will.

Into the Word

- How do we know that David didn't treat Saul as an enemy but embraced him wit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vv. 13–14)
- Why was the mighty and invincible power and authority of God with David? (8:11–12)

Into our life

- Can you regard God's will and plan higher than your own emotions and will?
- Have you ever persisted with your thought and volition against God knowing it was contrary to God's will?

Memory Verse | 2 Samuel 3:18

Now then bring it about, for the Lord has promised David, saying, "By the hand of my servant David I will save my people Israel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and from the hand of all their enemies."

Sharing with your children

- Would you be able to obey God by not choosing what you want because you know that choice would not please God?
- What would you choose? The things that please you and make you happy? Or the things that would please and honor God?

Standing before God



Straight is the Gate to Salvation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Come to the Saviour, Make No Delay



Opening Discussion

David became arrogant after consecutive victories and the prosperity that followed. This led him to commit sin with Bathsheba. Do we live with the recognition that we always stand before Go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Israelites enjoyed the very best prosperity with God's grace and power. The fame and might of the Israelites' name became prominent, they expanded their land and they possessed more than before. It was solely from God's grace and provision, but David regarded this success as his own achievement and the consequences of his greatness. This kind of arrogant attitude made David sin against God. He thought everything was permissible for him and he took Bathsheba, the wife of his loyalist, Uriah, and committed adultery. David then committed the murder of Uriah to hide his sins, not knowing that God watched everything even David's most inner thoughts and plans. David failed to fear God. David forgot that humans always stand bare before God. David's sin turned the page of Israel's history. Their heyday was over.

"Coram Deo" in Latin means "before God." It means standing before God. Coram Deo was the central life motto for Apostle Paul and other protestants like Calvin. The early protestants focused on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and the apostles of the early churches. This became the main theme for Christians who want to follow God 365 days a year and 24 hours a day. Coram Deo should be the measure and standard for all Christians. In many Christians' lives, we witness their efforts and focus on Coram Hominibus (before human beings) to appeal and prove their superiority to others. This secular trend also can be found among clergy and other church leaders to please the powerful figures in the secular world. Sometimes clergy seek to be appointed to a bigger church or a higher position in order to have more power and authority. Sometimes, congregants seek to take leadership positions in their churches. If they do not get what they want, they argue with others or leave. If you want to have certain positions and titles in church,

you tend to show your loyalty and obedience to clergy, and this produces the wrong kind of Christians. Let us remember that we seek recognition from God, not recognition from humans. Some Christians express extra awe when they approach the altar or around the cross and try to behave differently. Some congregants want to take off their shoes when they enter the altar. Please know that the cross, the altar and the pulpit are mere wooden pieces and only part of the church building. What good is it if we behave totally differently when we step out of church with the mindset of “Coram Hominibus” and forget “Coram Deo?” What good is it if we are not reluctant to behave shamefully outside of church but suddenly behave holy when we step in the church building? This is a picture of idol worship of the cross and the altar. Let us confess our sin for worshiping the wrong idols of clergy and church building when we focus on “Coram Hominibus.” May we stop the sin of discarding the glory of God by worshiping the idols of human clergy and church building. We need to go back to the Coram Deo spirit. As Coram Deo Christians, we should use the criteria in all our decisions of “Is it right before God or not?”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before God?”

Into the Word

- What was the main cause of the sin and corruption of David, the great king of Israel who built a dynasty based on God's reign? (v. 1)
-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infulness that God commands us to not even imitate a taint of sin? (vv. 8, 13, 15)

Into our life

- Have you ever done anything with a mindset that “I am standing before God?”
- Can you put the criteria, “What would Jesus do?” on your everyday words and deeds?

Memory Verse | 2 Samuel 11:11

Uriah said to David, “The ark and Israel and Judah dwell in booths, and my lord Joab and the servants of my lord are camping in the open field. Shall I then go to my house, to eat and to drink and to lie with my wife? As you live, and as your soul lives, I will not do this thing.”

Sharing with your children

Do you believe that God watches everything you think, do and say?

The Sovereignty of My Life



I've Found a Friend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
O Lord, My Strength



Opening Discussion

Was my mind and will the criterion for judging and deciding what to do in my life and in my daily life, or God's will and wor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t the end of his reign, David reflects on the past and acknowledges God's righteous providence in faithfully fulfilling the promised covenant despite his crimes. David had a weak human appearance and could not escape the limitations of a sinner, but God was always with him because he completely acknowledged God's sovereignty over all of his life. The essence that leads sinners to righteousness is complete submission to God's sovereignty. Christians are completed as a result of the processes of growth and maturation. Maturity is the process of achieving perfection. The process of continuous growth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clusion of completion. Maturity is an ongoing process. It does not occur overnight. Spiritual maturity is granting God, the owner of my life, the authority to work within me. I must completely empty myself in order for God to work within me. Only by emptying our minds, wills, assertions, judgments, and greed and inviting God into an empty room can God fully work within us according to His will and providence. If you have made God your master in me, you must empty me completely so that God may rule from head to toe. Labeling things and saying, "Don't touch my thoughts; don't get involved in my values; and don't talk about children's problems" is a declaration to God that I am still my own master. If you want to construct a completely new house, you must completely vacate the house and give it to the construction manager. It is very unappealing to see buildings whose construction has been halted due to various problems and disputes during new building construction. When God is trying to fix me here and there to build me, I intervene and say, "This

is this, that is that, this is not working, and that is not working.” It’s possible.

God began the process of shaping us into godly men who do good for God. God leads believers from justification to sanctification, and finally to Christian glorification, for their salvation. When we recognize that we are sinners, repent of our sins, and confess Jesus as our Savior, we are transformed from sinners to righteous. Sanctification is the process by which our justified life is transformed into a holy life that resembles Jesus. God transforms us into perfect Christians and glorious beings wh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rough the sanctification process. The process of God completely transforming us is the process of our lives as believers, so that we who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in Jesus can achieve Christian perfection through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and enjoy the splendor of heaven. My desires and thoughts should not be reflected in the building that God is constructing. Only when I give up all control over the construction of my life to God will He lead me into a glorious life. Those who seek God’s blessings must completely surrender themselves to Him right now.



Into the Word

- Who had the sovereignty to lead David’s life? (23:2)
- Who and what kind of life does the thorn tree thrown away from God symbolize? (vv. 6-7)



Into our life

- What is wrong with the essence of my life if there are more things for which my prayers are not answered?
- Is God or myself revealed as my master through my words and actions, my lifestyle, and my values and beliefs?



Memory Verse | 2 Samuel 23:2

The Spirit of the Lord speaks by me; his word is on my tongue.



Sharing with your children

- Can you admit that God is the owner of everything you own?
- Discuss what happened when you followed God’s will and word.

**MISSIONARY
OF THE MONTH**

***RIDDLE,
ASHLEY
WAITE***



Country

Zambia

Advance

#3022713

Serving At

**South Congo/
Zambia Episcopal
Area**

Home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Contact info

**ariddle@
umcmmission.
org**

Ashley Waite Riddle is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the Volunteers in Mission coordinator and Christian education trainer for the South Congo/Zambia Episcopal Area.

Born in Atlanta and calling Thomasville, Georgia, her hometown, Ashley most recently lived in Trussville, Alabama, with her husband, Joe Riddle, and two children, ages 4 and 5. She earned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soc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2007) and a Master of Divinity in theology from Candler School of Theology at Emory University, Atlanta (2016). She co-directed summer and basketball programs at St. Paul United Methodist Church, Atlanta. Ashley formerly attended Wesley Chapel UMC in Florence, Alabama, and Pell City (Alabama) UMC, where Joe was pastoring.

“I cannot remember the beginning of my journey with God,” she said. “God has always been with me, guiding my soul. I feel most in tune with God when I am encountering God’s creation with other people - when love, hospitality and grace are intermingled. I experience a beautiful and unexplainable peace when I am connecting to God’s work.”

Her mission, Ashley continued, is to be a messenger of love. “My highest goal is to love God by loving other people,” she explained. “I strive to take care of creation and the earth around me.” She feels called “purposefully to focus on dedicating my life to service. It is an honor to join with people in Zambia.”

The church in Lusaka, Zambia’s capital, is experiencing significant growth that needs to be translated into adequate church infrastructure building. Ashley will invite and guide Volunteers in Mission in supporting church projects in the area, especially in terms of church construction. She also will support and train Sunday school leaders, critical for setting a strong foundation for the church in Lusaka.



“이집트-가나안 -광야-바벨론”



이진희 목사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다"의 저자)

1. 이집트

이집트는 죄악의 땅이 아니다. 죄악으로 물든 땅이라서 그곳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죄악으로 말하자면 가나안이 이집트보다 훨씬 더 죄가 관영하는 곳이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 거민들과 동화되면서 이집트에서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지 않았는가? 히브리인들이 죄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 이집트를 떠나게 하신 것이었다면 가나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어야 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게 하신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나안에서 히브리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러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던 것이다. 이집트를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이 죄로 물든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던 것이다.

이집트는 떠나야 하는 어떤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살던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셨지만, 야곱의 자녀들은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잉태되었고 이집트에서 태어났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예수님이 해룻을 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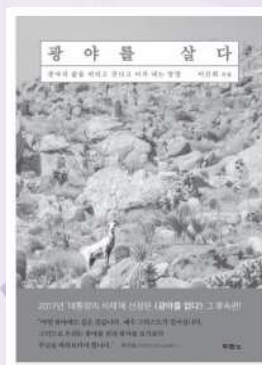
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게 하신 것일까?

영에 속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해 피신하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집트였다. 이집트가 예수님을 살렸다. 예수님을 보호해 주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신다. 또 어떤 때는 이집트에서 떠나게도 하신다. 이집트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징하지 않는다. 이집트는 떠나야만 하는 어떤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이집트였던 것이다.

2. 가나안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란이 죄악된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하나

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하란을 떠나게 하신 것뿐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은 그가 떠나야 할 이집트였다. 안락한 현실을 버리고 열악한 선교지로 가신 분들이 많다. 가나안을 버리고 광야로 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지는 가나안이다. 선교사들은 가나안과 같은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악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집트는 죄악의 도성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곳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떠나야 할 이집트가 있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

유가무엇인가? 그곳에 들어가 좋은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 좋은 집을 짓고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가나안이 이집트보다 더 좋은 곳이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다. 이집트가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가나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인 이집트를 떠나 척박하기 그지없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며 우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그곳이 축복의 땅이라서가 아니다. 가나안보다 이집트가 더 축복된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를 떠나 그보다 훨씬 열악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가나안이 아프리카 밀림이라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와 있다면, 이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 비록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아프리카 밀림이나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 지라도 이곳이 가나안이다.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까? 언제 이 광야가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가나안일 수 있다.

떠나고 싶지 않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이집트일 수도 있다.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 다른 곳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있는 곳을 떠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히브리인들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다.

반대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

을 때도 있다.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할 때도 있다.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 아마 그렇다면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가나안일 수도 있다.

3. 광야

미국에 이민 올 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다고 믿었는데, 와서 보니깐 광야였다. 내가 잘못 온 건가? 아니다. 광야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있는 이곳이 광야처럼 보여도 가나안일 수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날이면 날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광야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광야를 지나느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고 싶어 했

다. 하나님의 지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길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게 하신 것일까? 영에 속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결국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만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러라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이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광야 구덩이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한다. 그래야 새사람이 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속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원망만 하고 있지 않는가? 왜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생각은 하지 않고 광야를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가나안에서의 삶도 결정이 된다.


4. 바벨론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간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을 만나게 된다. 먹을 음식이 없자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고산다. 이 탕자가 당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당한 일이었다. 가나

안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먼 나라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한 심한 신세가 되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살게 되었다. 그러다 탕자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셨다. 가나안에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탕자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내용은 탕자의 비유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의 광야를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야기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끌려가고 말았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났던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광야였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광야는 피할 수 있는 광야였다. 피할 수 있는 광야를 피하지 못하고 그 광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셨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여기가 종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바로의 노예가 되고 만다. 광야를 지날 때는 자꾸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라. 그러다가 광야에 무덤을 만들게 되는 수가 있다.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에 동화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가 될 수도 있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길이 보일 것이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 보일 것이다.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한국교회사 66가지 명장면들!

04. 콜레라 퇴치운동과 새문안교회 건축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교회는 원래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비좁아져 1895년 새문안교회는 새로운 건물을 마련해야만 했다.

당시 새문안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가난했다. 대개가 교사, 목수, 농부, 상인 등이어서 한 달에 5달러 이상을 벌 수 없었다. 그런데 건축비는 2천 달러가 필요했으며 선교사들은 이 건축을 위하여 한국 신자들도 성의를 다하여 헌금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모금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의 요구에 반발하였다. 기독교는 외국 종교인데, 외국인들이 그 경비를 다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언더우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있어 외국 돈을 사용한다면 기독교는 계속 외국 종교로써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짓고, 전도사를 파견하고, 당신들의 학교를 지원한다면, 사람들은 기독교가 더 이상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언더우드의 이 말을 들은 한국 신자들은 자신들이 출선해서 교회를 짓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을 본 언더우드는 놀라며 말했다.

“당신들은 매우 가난한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언더우드는 할 말을 잃었고, 신자들은 용감하게 건축을 시작하였다. 목수들은 번갈아 가며 무임으로 일하였고, 노동을 하지 않았던 지식인들도 건축현장에 나와서 도왔다. 심지어 주일학생들까지도 자기 몫을 다하였다.

그 해 여름 서울에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콜레라가 돌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를 쥐병이라고 불렀는데, 증상이 쥐가 다리를 잡고 올라와서 가슴에 이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한 쥐를 잡는 것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들은 고양이 귀신에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에 종이 고양이를 매달며, 경련이 난 곳을 고양이 가죽으로 문질렀다.

편집자주 |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를 빛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곳곳에 콜레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부적이 걸렸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1886년에 창궐했던 콜레라를 치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선교사들은 다시금 한마음이 되어서 콜레라 퇴치에 나섰다.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에비슨 박사가 총지휘를 맡았다.

그리고 언더우드도 그의 부인과 함께 이 일에 적극적이었다.


언더우드는 형의 도움으로 1893년부터 서대문 밖에 콜레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보호소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언더우드는 이 보호소를 중심으로 콜레라 퇴치 운동을 벌였다.

콜레라 퇴치운동에 필요한 것은 훈련된 봉사단이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조선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언더우드가 섬기던 새문안교회 신자들이 많이 가담하게 되었다. 이들의 노력은 상당한 결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병원으로 가면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부에서는 사방에 벽보를 붙였다.

“예수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

얼마 가지 않아서 콜레라는 수그러들었다. 정부에서는 언더우드에게 미국 공사를 통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왔고, 선교사들에게는 감사의 선물과 치료에 들었던 약 값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선교사와 함께 봉사했던 조선인들에게도 상당한 보수를 지불하였다.

조선인 신자들은 뜻하지 않은 거금을 만져 보게 되었다. 새문안교회 신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받은 귀한 돈은 귀한 일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 귀한 일이란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하였다.

새문안교회 신자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하여 쓴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 응답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격하였다. 새문안교회는 이로 인해 가장 좋은 기와와 재료를 사용해서 한국에서 최고의 한식 건물로 세워지게 되었다. 

유성준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 10

세이비어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메뉴얼 2

1. 그리스도의 집/노숙자 병원

“그리스도의 집/노숙자 병원”은 24시간 거주가 가능한 노숙자를 위한 의료 시설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1985년 12월에 문을 열었다. 지금 “그리스도의 집”은 워싱턴 D.C.에서 이런 종류로는 유일하고 가장 큰 시설이다. 개원 이후로 그리스도의 집은 9,500여 명의 입원환자를 받았다.

환자들은 지역 병원, 보호소, 의원, 의료봉사 프로젝트에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보내진다. 그들은 암, 폐렴, 고혈압, 뇌졸중, 간질환, 신부전증, 당뇨 및 관련 절단 수술, HIV/AIDS, 호흡기 질환, 각종 자상, 골절, 피부궤양 등의 질환과 부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영양실조, 빈혈,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을 겪고 있고 건강 지원책과 단절된 채 거리에서 살고 있다.

2020년에 “그리스도의 집”은 140명의 입원환자와 7,122명의 외래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했다. 환자들은 평균 39일 상주했고, 54%가 입원 당시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 그리스도의 집의 사역과 비전

“그리스도의 집”의 사역은 워싱턴 디시 내의 아픈 노숙자들에게 종합적이고 친절 한 의료를 제공하고, 그들이 반복되는 노숙상태의 악순환을 깰 수 있도록 중요한 문 제를 다루는 데 노력하는 것이다.

이 사역은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노숙인 사역을 달성한다.

- * 그들은 환대하고
- * 삶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통한 치유를 지원하며
- * 안정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 * 공동체를 형성한다.

■ 역사

“그리스도의 집”의 여정은 1974년 알렌 목사(Allen Goetcheus), 의사인 자넬 박사(Janelle Goetcheus) 부부가 파키스탄의 의료선교를 수락했을 때 시작되었다. 비 자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인 자넬과 미국 감리교 목사인 알렌은 워싱턴 디시의 세이 비어교회와 그 사역지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과 노숙자들의 큰 필요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은 해외에서 일할 계획을 취소하고 1976년 워싱턴 디시로 이주했다.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자들 사이에서 진료를 하는 동안, 자넬은 그녀의 환 자들이 치료소 환경에서 다루기에는 건강상 필요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녀는 또한 병원들이 보험이 없는 환자를 더 빨리 퇴원시키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말은 노숙자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거리와 쉼터에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자넬은 이 환자들이 주요 질병과 수술에서 회복하는 동안 거주하고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알렌은 세이비어교회 공동체의 다른 다섯 구성원과 함께 소명을 받아, 마자(Marja)와 데이빗(David), 힐 퍼커(Hilfiker) 부부, 돈(Don)과 엘렌 마틴(Ellen Martin) 부부, 마셀라 조던(Mar cella Jordan) 자매를 포함하는 신앙심 깊은 소그룹인 미션 그룹을 만들게 되었다.



이 일곱 명의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집”을 계획하고 만들게 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리더로서 동참하여 봉사하게 되었다.

자넬은 아픈 노숙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미션 그룹 참여자들의 우려를 세이버교회의 담임목사인 고

든 코스비(Gordon Cosby)와 나누었다. 그는 익명으로 250만 불을 기부한 한 개인과 대화를 나누고 노스웨스트 1717 콜롬비아 거리의 버려진 건물을 구입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첫 몇 달간 운영비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게 되었다. 1985년 크리스마스이브에 “그리스도의 집”은 첫 환자를 받아들였다.

알렌과 자넬은 또한 몇몇 다른 의료 선교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다. “Cross-road Health Ministry”가 1977년에 처음 문을 열었고, 1978년에 “Community of Hope”가 그 뒤를 잇고, “Columbia Road Health Servicers”가 1979년에, 그리고 1981년에 NGO인 SOME(So Others Might Eat)에 지원 진료소가 설립되었다.

현재 자넬 박사는 “그리스도의 집”에 의료책임자로 일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남편 알렌목사는 예배와 목회적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 “그리스도의 집”의 의료 관리

그리스도의 집은 상주 의사, 임상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팀이 24시간 진료를 제공한다. 그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를 하며, 약을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수술 전/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집”에 오는 환자들은 뼈 골절, 암, 폐 질환, 발/다리의 궤양, 당뇨,



HIV/AIDS, 고혈압, 간질환, 신부전증, 화상, 동상 등 다양한 질병과 부상을 가지고 있다. 환자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진단을 받는다. 약물 사용 장애와 정신질환은 환자 다수의 건강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한다. 직원들은 입원, 사후 진료 등을 연결하고, 심장전문의, 종양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전문가를 방문하는 것을 조력한다.

환자를 특정 진료와 연결하고 예약에 갈 수 있도록 차량과 동행을 제공하는 것이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위해 중요하다.

■ 환자관리

환자 관리팀은 환자의 복잡한 필요를 다루기 위해서 개인 중심의 접근법을 취한다. 첫 방문과 진료 기록은 개인의 사정과 어려움을 더 깊게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환자 관리 담당자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각 환자와 만나고, 그리고 나서

주마다 열리는 관련 부서팀 회의에서 진료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 다른 혜택들, 그리고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같은 법적 서류를 얻는 작업을 한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가족들과 재교류하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거기에 더하여, 환자 관리 직원들은 집중 외래 환자 회복 프로그램, 정신건강 서비스, 과도기의 거주 프로그램, 양로원, 직업훈련 같은 외부 공동체 지원책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

무엇보다도 환자 관리팀은 개인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한다.

■ 약물사용 질환치료

“그리스도의 집”에 약물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새로운 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9주간 “그리스도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중 회복

프로그램은 2000년에 시작되었고 약물중독 공인 상담자가 이끈다. 의학적으로 적합한 경우, 환자는 “그리스도의 집” 외부의 약물 남용 치료 시설로 장기 위탁치료를 받는다. 재활 프로그램인 “카이로스 프로그램”의 멤버들은 주마다 중독 관련 직원을 만난다. 알코올중독자 재활을 위한 조직(Alcoholics Anonymous)과 약물중독자 재활을 위한 조직(Narcotics Anonymous)은 “그리스도의 집”에서 일주일에 네 번 열리고 이웃들에게도 열려 있다.

■ 전영역에 걸친 지원 서비스

한 개인을 전체적으로 치료하려는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집”은 거주자들이 그들의 몸, 마음, 그리고 영성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음식서비스

거리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는 다음 식사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려고 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집”에 오게 되는 많은 환자들은 영양 실조 상태에 있다. 회복을 위해서 좋은 영양상태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집”에서 제공되는 균형 잡힌 세 끼의 식사와 간식이 환자들에게 반가운 개선점이 된다.




음식 서비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집” 환자들이 회복에 필수적인 적합한 영양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당뇨, 고혈압, 신부전증, 철제 시술을 한 터, 또는 다른 식단 상 필요가 있는 환자들의 위해서 특별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한다.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제공되고, 거기서 환자,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한다.



■ 환자 활동

“그리스도의 집”에는 환자들을 위해서 미술과 시 워크숍, 운동 시간, 게임, 영화, 자원봉사 참여, 공원, 박물관, 운동경기, 문화행사를 위한 외출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대부분의 활동은 연간 자원봉사활동 기획자가 조직한다. 이 활동들은 환자들의 시간에 짜임새를 주고, 자기 발견을 증진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 목회적인 돌봄

목회적인 돌봄을 담당하는 직원은 노숙자 환자들에게 감정적인 지원을 한다. 매일 일대일 접촉과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노숙과 고립의 아픔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자들은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공부, 주간 기도회, 그리고 회복 지원 그룹에 들어가는 선택권을 갖는다. 거기에 담당 직원은 입원, 말기 환자 치료, 투옥, 양로원 등을 위해서 떠난 환자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어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어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십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

김정이 _ 벨리연합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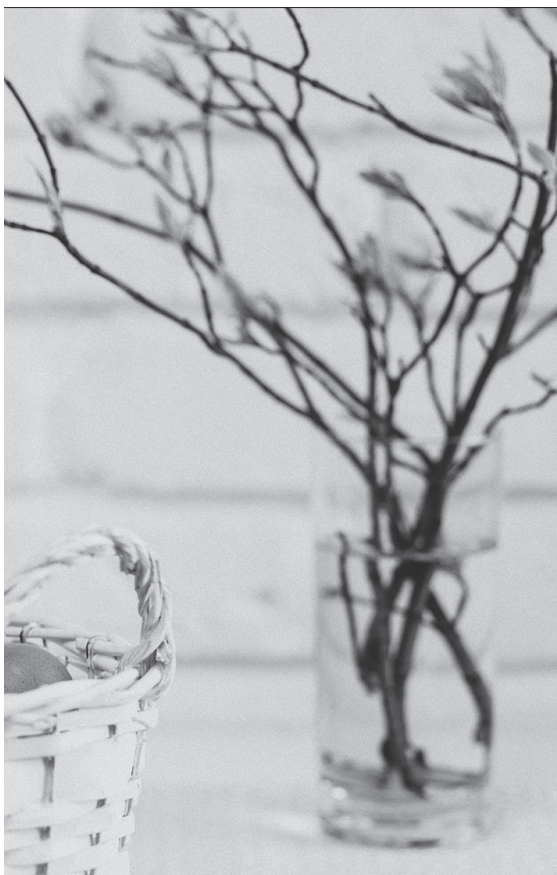


사순절이 시작되고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었다.

미국 내 한인 연합 감리교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돌아가며 들을 수 있게 된 이번 특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예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매년 부활절은 미국에 와서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던 성금요일 금식을 떠올리게 하고 그 금식기도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남편의 영혼구원은 긴 세월이 지난 후 이

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특새의 전통은 매년 나에게 설렘으로 다가온다.

평소 기도생활을 정기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지내기에 올해 사순절 40일 새벽기도를 작성하게 되면 40일간 매일 새벽예배 후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마음먹었는데도




잘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새벽예배에 갈게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하고 잠을 잤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새벽 4시 25분에 눈을 뜨게 하셨다. 시간을 보니 조금 더 이불 속에 있다가 일어나도 될 것 같아 다시 눈을 감았는데 그만 잠이 들어 예배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기를 똑같이 3일을 반복했다. 깨워주신 하나님께 미안한 맘이 들었다. 그래도 또 깨워달라고 부탁하고 잠을 잔 4일째

되는 날 어김없이 4시 25분에 눈을 뜨게 하신 친절하신 하나님,,, 거기에 여전히 조금만 더 있다가요...라고 눈을 감은 나... 3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왼쪽 귓속으로 날파리가 들어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들짝 나를 놀라게 한다.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짓궂으신 하나님.

해가 길어진 덕분에 교회로 가는 길이 환하다. 본당 앞자리에 앉아 처음 보는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을 하신다.

날파리를 귓속에 날아들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예배를 마치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더니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귀로 들었다. 네가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 속에 있는 빛을 밝게 비추려무나. 그럼 어둠이 물러가겠지? 그리고 각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일하자꾸나... 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 속에 그리고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환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팬데믹과 나의 믿음

고애선 권사 _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시카고는 갑자기 눈 폭설과 함께 추운 날씨가 며칠간 계속되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운전이 어려운 날씨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것도 축복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40일 동안 40분들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도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매일매일 기대와 설렘으로 새벽을 기다리게 되었다.

새벽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으니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바깥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지나간 일 년 동안의 일들이 한 장, 한 장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랜터 윌슨 스미스(Lanta Wilson Smith)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라는 시가 생각났다.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

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네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작년 3월 22일 갑자기 성전예배가 중단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을 때 당황하게 되었고, 말씀묵상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 유행어를 탄생 시킨 후 빠르게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전염병.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경제는 밑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통령은 비상 시기를 선포하였으며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교회도 오늘(3월 18일) 새벽예배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이는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감사함을 모르며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피와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며 준비하셨던 이 계절에, 저희들은 사치와 방탕과 시기와 질투, 분쟁과 미움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멸시하며 없신여겼던 마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움터오는 봄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찬 바람만 느끼는 강박한 마음에 새로운 향기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라는 찬양을 들으며, 기도드렸던 작년 사순절의 일기는 나의 눈시울을 축축이 적시며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성전예배가 중단된다는 소식과 함께 교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 예배와 줌 사용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온라인 예배 장비 구입을 위하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여 주시고(목표액 \$20,000 금세 넘어

섬) 나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므로 책상을 성전을 향하여 두고 매일 새벽 목사님 말씀과 함께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하루 세 번씩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때 기록했던 일들이 벌써 일 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나는 2020년 3월 26일부터 하루 3번(오전 5시, 정오 12시, 오후 7시) 시간을 정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새벽예배부터 시작하였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먼저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없도록, 교회의 재정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드렸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온라인 예배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교회 리더들과 담임목사님과 목회실을 위하여도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구하였다.

그 후에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께서 부활절 다음날(4월 13일)부터 성전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하루 세 번씩 교회를 향하여 기도드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선포하셨다. 나는 정오 12시 기도 시간을 카톡으로 알리는 사역을 맡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다. 그때의 기록

이 다시금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올해 처음으로(2020년 4월 13일) 창문을 열어 보았다.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성전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기도는 드리고 있었지만 창문은 열지는 않았었다. 오늘은 전 교인이 함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첫날, 첫 시간이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내 기도 소리도 함께 새벽의 공기 속으로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비가 내린 후 새벽의 공기는 아직도 차갑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 서, 남, 북에서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는 뜨겁게,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부르짖음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각종 뉴스를 통하여 생필수품이 모자란다는 소식과 마스크, 화장지 등이 모자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동안 마스크와 화장지 구입이 어려워졌다. 내가 봉사하고 있는 '시카고한인여성회' 임원들과 함께 의논하여 마스크 800매를 구입하여 신문사를 통하여 한인사회 어려우신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일과 실직하신 10분의 여성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위로금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일은 큰 보람이었다. 또한 약사로 근무하는 큰딸이 화장지와 타네놀 약품 등 여러 가지 생필수품들을 쉽게 구입하여 주어 교회 사무실에 갖다 놓아 교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였던 일들을 통하여 항상 감사한 마

음이었다. 교회 평신도 대표로서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드리며, 자주 주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 그때마다 주님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며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담임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서는 항상 좋다고 하시며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더욱 용기가 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다시 성전 예배가 재개되기 전 7월, 블루베리 바자회를 하여 온라인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교회를 도와주었던 일, 그리고 가을엔 사과, 밤 바자회를 하여 수익금을 교회 100주년 헌금으로 드렸던 일, 음식 바자회를 통하여 수익금 일부를 뇌종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과 싱글 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을 도왔던 일, 그리고 담임목사님과 몇 분의 권사님들과 함께 80세 이상의 교우들을 심방하며, 사과와 떡, 유과 등을 준비하여 드렸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치킨과 몇 가지 간단한 음식을 오더 하였지만 갑자기 다시 성전 예배가 중단하게 되어 마지막 순

간에 취소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으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여 선교회와 함께 전 교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드리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소식을 들은 남 선교회에서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여 주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권사님 가운데 한인 마켓과 친분이 계시는 분이 계시어서 김과 떡국떡을 도매가격으로 구입하여 교회에서 준비한 카렌다와 또한 무역하시는 성도님이 도네이션 한 마스크를(7천 개) 한 팩으로 만들어서 각 성도님들께 나눌 수 있었던 일은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감사한 일이었다. 또한 장애우들의 모임인 물댄동산과 다민족 교회에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 후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수고하여 주신 모든 동역자들과 항상 기도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주제로 신년 2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첫 주간은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그 후 계속하여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교회에서 교재로 사용한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통하여 새 시대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드릴 수 있어서 더욱 큰 기쁨과 은혜의 강물이 내 영혼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다섯째 날, 김광태 담임목사님께서 잠언 8:1-8, 32-36 말씀으로 “생명과 은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며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에 더욱 깊은 은혜를 받았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한 분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야?”라고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으며, 주님의 질문에 약간 당황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오래 전 나는 가지고 있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책상 서랍 속에 두고 있었는데 도둑이 와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 후 자녀들이 생일 선물로 비슷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해 주어서 한 번도 끼어보지 않고 은행 safety box에 두고 있었다. 갑자기 그 반지가 생각나서 “주님!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석 중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필

요하시면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실에 나 자신도 놀라게 되었다. 주님은 다시 대답해 주셨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울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해 준다면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하게 될 것 같구나” 기도를 마친 후 담임목사님께 말씀드린 후 앞으로 다가올 교회 100주년 기념 성업으로 Charity Foundation을 만드는 일에 헌물하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가진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올해 교회에서는 빌립보서 1장9-11절 말씀을 주제로 주셨으며, 나는 하루에도 몇번씩 외우며 나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있다.

벌써 우리집 뒷마당 정원에선 새싹들이 움터오고 노오란 수선화가 긴 겨울의 찬바람을 이기고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이 시간, 사순절 동안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매일 새벽기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훗날 또 하나의 신앙의 유산이 되리라 믿으며 노트에 정리하는 시간

을 가져보았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또 다른 기회였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이 봄날의 따스한 햇살 속으로 흘려보내고 싶다.

주님!

긴 겨울의 언 땅을 헤집고 새싹들이 움터 오기 시작하는 이 희망의 계절에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눈처럼 희고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눈이 녹아 흐르는 물줄기 속에 용해되어 멀리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새벽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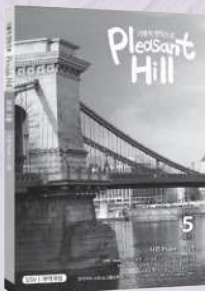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옥,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웅,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웰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욱, 323-382-0691)
벤나이스연합감리교회(이상호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안정선,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콜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성,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현, 805-485-0100)
온타리오 감리교회(전재홍, 909-986-6641)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김태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산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213-235-7659)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 858-354-0009)
히스패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황,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운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시성, 719-570-0300)

• **Connecticut(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대호, 203-387-1579)
새생명교회(최동현, 203-340-1236)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돈, 860-953-0141)

• **Delaware(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사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성, 352-726-7245)

• **Georgia(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말한인교회(정찬웅,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익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원홍연,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이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쿰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행,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인디애나 주)**

블루밍턴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재,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캔자스 주)**

위치타는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용재, 620-231-2540)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이길표, 207-774-1617)

• **Maryland(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위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다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유승찬,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미네소타 주)**

멘케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네바다 주)**

거자씨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용,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문정용, 732-613-4930)
그레이크펠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나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형,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이트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김영식)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이용보,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최현덕,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스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테이트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신승호,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라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 (440-845-1728)
한인메디슨빌연합감리교회 (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 (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 (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 (윤갑수,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 (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 (홍정균, 215-542-5686)
필라델피아교회 (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 (신규석, 864-567-3633)
찰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 (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 (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진,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 (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 (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 (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 (박경원)
러브연합감리교회 (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 (박창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 (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 (오요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 (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 (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 (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 (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 (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 (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 (박주성,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홍성욱, 757-484-5988)
새빛교회 (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 (최운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 (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 (강현식, 703-336-3679)
엘마오연합감리교회 (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교회 (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 (정성호, 571-401-3872)
와싱턴한인교회 (김영훈,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 (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 (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 (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 (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 (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 (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이대규, 262-658-1131)

•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 (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 (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3/01			2023/02			2023/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주일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1
02	에베소서	1	02		2	02		2
03		2	03		3	03		3
04		3	04		4	04		4-5
05		4	05		주일	05		주일
06		5	06		5	06		6-7
07		6	07		6	07		8
08		주일	08		7	08		9
09	갈라디아서	1	09		8	09		10
10		2	10		9	10		11
11		3	11		10	11		12
12		4	12		주일	12		주일
13		5	13		11	13		13
14		6	14		12	14		14
15		주일	15		13	15		15
16	빌립보서	1	16		14	16		16
17		2	17		15	17		17
18		3	18		16	18		18
19		4	19		주일	19		주일
20	골로새서	1	20		17-18	20		19
21		2	21		19	21		20
22		주일	22		20	22		21-22
23		3	23		21	23		23
24		4	24	룻기	1	24		24
25	데살로니가전서	1	25		2	25		25
26		2	26		주일	26		주일
27		3	27		3	27		26
28		4-5	28		4	28		27:1-28:2
29		주일				29		28:3-29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30
31		3				31		31

2023/04			2023/05			2023/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고난주간	02		2	02		2-3
03		H-1	03		3	03		4-5
04		H-2	04		4	04		주일
05		H-3	05		5	05		6-7
06		H-4	06		6	06		8
07		H-5	07		주일	07		9-10
08		H-6	08		7	08		11
09	부활절	주일	09		8	09		12-14
10		2	10		9	10		15-17
11		3-4	11		10	11		주일
12		5	12		11	12		18-19
13		6	13		12	13		20-21
14		7	14		주일	14		22
15		8-9	15	호세아	1	15		23-24
16		주일	16		2:1-13	16		25-26
17		10	17		2:14-23	17		27
18		11	18		3	18		주일
19		12	19		4	19		28
20		13	20		5	20		29-30
21		14	21		주일	21		31
22		15-16	22		6	22		32
23		주일	23		7	23		33-34
24		17	24		8	24		35-36
25		18	25		9	25		주일
26		19	26		10	26		37
27		20-21	27		11	27		38-39
28		22	28		주일	28		40
29		23-24	29		12	29		41
30		주일	30		13	30		42
			31		14			

2023/07			2023/08			2023/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2	01	역대하	5	01	사도행전	1
02		주일	02		6	02		2
03		3-4	03		7	03		주일
04		5-6	04		8-9	04		3
05		7-9	05		10-11	05		4
06		10	06		주일	06		5
07		11	07		12	07		6-7
08		12	08		13	08		8
09		주일	09		14	09		9
10		13	10		15	10		주일
11		14	11		16	11		10
12		15	12		17	12		11
13		16	13		주일	13		12
14		17	14		18-19	14		13
15		18	15		20	15		14
16		주일	16		21-22	16		15
17		19	17		23	17		주일
18		20	18		24	18		16
19		21	19		25	19		17
20		22	20		주일	20		18
21		23	21		26	21		19
22		24-25	22		27-28	22		20
23		주일	23		29	23		21
24		26-27	24		30	24		주일
25		28	25		31	25		22
26		29	26		32	26		23
27	역대하	1	27		주일	27		24
28		2	28		33	28		25-26
29		3	29		34	29		27
30		주일	30		35	30		28
31		4	31		36			

2023/10			2023/11			2023/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예레미야	주일	01	예레미야	29	01	요한복음	1
02		1	02		30	02		2
03		2	03		31	03		주일
04		3	04		32	04		3
05		4	05		주일	05		4
06		5	06		33	06		5
07		6	07		34	07		6
08		주일	08		35	08		7
09		7	09		36	09		8
10		8-9	10		37	10		주일
11		10	11		38	11		9
12		11	12		주일	12		10
13		12	13		39	13		11
14		13	14		40-41	14		12
15		주일	15		42	15		13
16		14	16		43	16		14
17		15	17		44-45	17		주일
18		16	18		46-47	18		C-1
19		17	19		주일	19		C-2
20		18	20		48	20		C-3
21		19-20	21		49	21		C-4
22		주일	22		50	22		C-5
23		21	23		51	23		C-6
24		22	24		52	24		주일
25		23	25	예레미야애가	1	25		15
26		24	26		주일	26		16
27		25	27		2	27		17
28		26	28		3	28		18
29		주일	29		4	29		19
30		27	30		5	30		20
31		28				31		21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박효연
❖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운호, 홍사라, Ester Kim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조기현,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조속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562-944-5344 (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강현중 목사 (토랜스연합감리교회, CA)

❖ 주일 칼럼

백승린 목사 (베다니연합감리교회, NJ)

이철구 목사 (남부플로리다한인교회, FL)

최현 목사 (올네이션스연합감리교회, KY)

한익준 목사 (그리스도교회, HI)

홍성국 목사 (평촌감리교회, 경기)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 1976, 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